목차

04 **여는 글**

해외소식

05 **나마스떼, 둥게스와리**(인도)
인도의 여름? 디카트 네히 해~ | 최선희

08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더위와 피로를 한방에, 마을 주민의 선물 – 부코주스(코코넛) | 배명숙

12 **밍글라바, 미얀마**
타나카, 예알루, 그리고 빛나는 미소로 여름을 견뎌요 | 김성현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미얀마 사업장의 꿈 | 김성현

18 **쭘리읍쑤어, 캄보디아**
열대몬순의 현장, 캄보디아 한가운데에 서다 | 박병수

21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첫 해외봉사활동 소감 | 김선욱

국내소식

24 **함께 나누는 사랑**
진건고 '다산의 후예들'과 국제구호의 꿈을 키워요 | 편집부

30 **JTS와 함께하는 사람**
재능기부로 보람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요! | 편집부
인도네시아 루북바송에도 JTS의 결실이 활짝 피었습니다. | 편집부
코오롱패션 산업연구원 학생 일동, 졸업행사로 마련한 기부금 전달 | 편집부

41 **JTS, 정토를 일구다**
1부 – 나타나끼리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 편집부

나눔회원소식

44 **활동터 소식**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49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펴낸날 2012. 7. 9 **펴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펴냄터** JTS **도운이** 강선미, 양은지, 김옥희, 김혜원, 정가영, 최양희, 최지정, 김진진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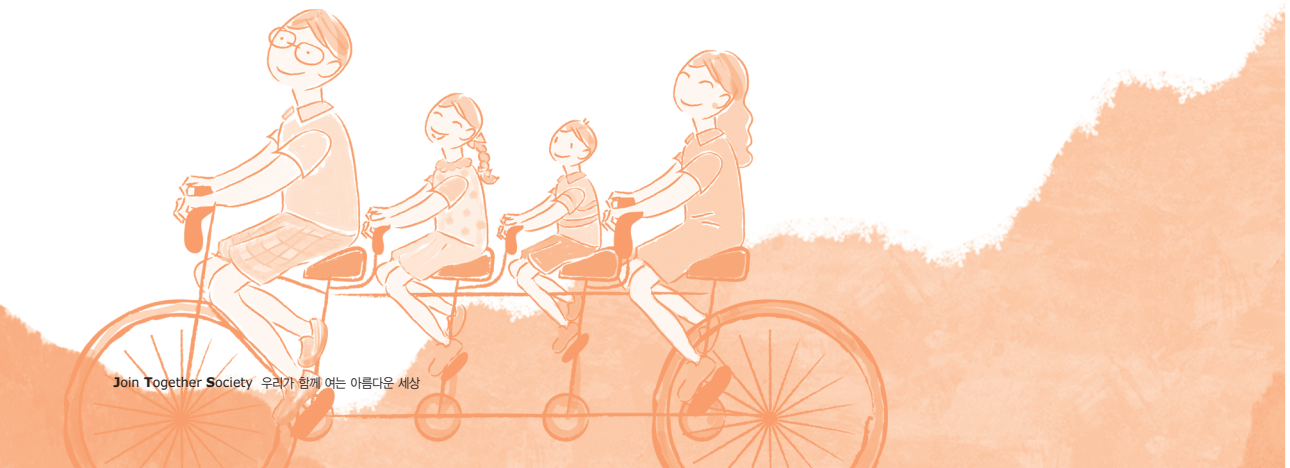
여는 글

JTS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신지요. 계절에 발맞추어 이번 7, 8월 JTS 소식지는 '혹서기 특집'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JTS 사업장은 모두 한국보다 무더운 동/서남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슬기롭게 무더위를 견뎌내는 마을 주민분들의 지혜를 공유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분주히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소식을 고루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JTS한국 사무실에서 빛나는 재능을 나눠주고 계신 재능기부 자원활동가 오은경, 최지정님의 인터뷰와 잠시 한국을 방문해 주신 JTS인도네시아 임희성 활동가님의 인터뷰도 정성껏 준비해 보았습니다. JTS가 이번 학기동안 국제구호활동 교육을 진행한 진건고등학교 착한 기술연구회 학생들과 선생님의 따스한 목소리도 들어봐 주세요. 지난 5월 불교TV에서는 석가탄신일 특집방송으로 2회에 걸쳐 JTS캄보디아와 JTS필리핀 사업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요, 이 중 1부였던 JTS캄보디아 편의 내용을 정리한 글도 한 꼭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번 소식지 마지막에 실리는 사업장별 활동 소식도 잊지 말고 읽어주세요.

JTS 7, 8월호 소식지 읽으시며
오늘도 즐겁고 기운 나는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TS 소식지 편집부



감치를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중학교 남학생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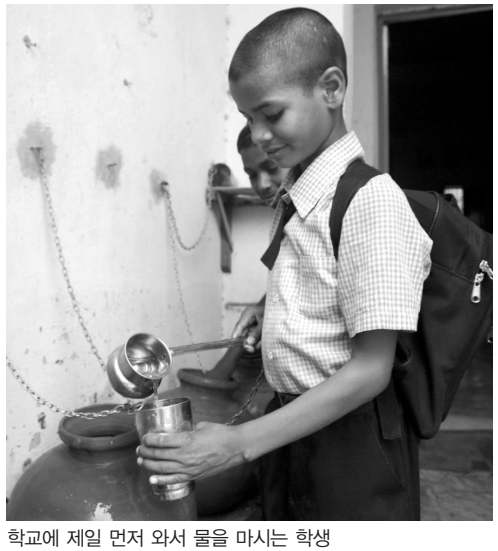
인도의 여름?
디카트 네히 해[1]~

1) 힌디로 "문제 없어요"라는 뜻

출국 전 가장 걱정했던 것이 드디어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여름! 인도에서 여름을 겪어본 사람들은 '출구 없는 한증막' 같다고들 말했다. 과장이 아니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하고 땀띠가 온 몸을 뒤덮는다. 인도의 여름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중이다.

/함께하고 글쓴이

최선희 | JTS인도 활동가


학교에 제일 먼저 와서 물을 마시는 학생

여성은 이런 식으로 햇볕을 피한답니다. 누굴까요?

지난 두 달 동안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진 탓에 학교 지하수 수위가 많이 낮아져졌다. 물을 끌어올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운동장에 있는 수돗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하교 전 아이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핸드펌프에 길게 줄을 늘어섰다. 근처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먼 곳 사는 아이들을 위해 물을 양보할 정도였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더위이니 마을 사람들은 다 적응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등하교 길에 쓰러지는 아이들, 온몸에 땀띠 투성이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역시 나처럼 이 더위가 힘들구나 싶다.

그렇다면 수자타아카데미 아이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을까? 오늘은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로부터 배운 둥게스와리의 여름 나기 노하우를 JTS 식구분들과 공유해 보려 한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감치'!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 인도 남자들은 감치라는 긴 천을 머리에 두르는데 집에서는 치마처럼 둘러입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오전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태양이 가장 뜨거운 점심시간에 학교로 돌아오는 중학생들을 위해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천을 떼다 감치를 만들어 지급했다. 감치가 전달되던 날 아이들의 얼굴에 함박꽃이 피었고 모두 곱게 감치를 두르니 잘생긴 얼굴이 두드러져 여느 때보다 더욱 멋있어 보였다.

두 번째 비법, '가라'! 인도에는 더운 여름 날 물을 시원하게 하는 마법의 항아리가 있다. '가라' 라는 이름의 흙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아래 모래를 깔고 바람이 부는 곳에 놔두면 놀라울 만큼 물이 차가워진다. 우리는 이번 여름 아이들이 좀 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자타아카데미와 유치원에 흙 항아리

비밀의 요술항아리, '가라'

야자수 나뭇잎으로 만든 '빵카'!!

개수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바가히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저렴하고 질 좋은 항아리를 20개 주문했고 그 마을 학생들이 등교길에 배달을 해 주었다. 학교 화단을 이용하여 항아리 4개를 설치한 후 건축부 노동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컵과 국자를 멋지게 고정했다. 개시 첫 날부터 가라 물은 인기 폭발! 쉬는 시간과 하교 길에 백 미터 달리기 시합하듯 개수대로 달려와 시원한 물을 마시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려니, 그저 바라만 보아도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다.

세 번째 방책은 '빵카'! 이곳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에어컨은 꿈도 못 꾸고 선풍기도 한정된 시간에만 돌릴 수 있다. 그렇다보니 더위 쫓기에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가 부채다. 모양도 소재도 가지각색인 빵카. 야자수 나뭇잎으로 만든 부채, 비닐 포대를 바느질해서 만든 부채 등 기존 재료들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생활에 유용한 부채를 만드는 둥게스와리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인도가 많이 덥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인도에서 여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여름을 논하지 말라!?) 내 평생 흘릴 땀을 두 달 동안 다 흘린 것 같은 기분이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결코 맛보지 못했을 더위. 그동안 한국에서 편하게 살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다. 부족할수록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인도 여름이 내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땀은 쉴 새 없이 흐르지만 상상 그 이상의 더위를 맛보게 해준 인도의 여름에 감사하다. 무더운 여름, 해외 사업장에서 더위를 이기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JTS 활동가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물을 채우는 것도 사이좋게 사떼사떼(함께)!!

더위와 피로를 한방에, 마을 주민의 선물 - 부코주스(코코넛)

/함께하고 글쓴이
배명숙 | JTS필리핀 활동가

한국은 많이 덥죠? 필리핀 민다나오사업장은 1년 내내 덥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여름 별미인 냉콩국수 같은 것이 이 곳 민다나오에는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는 마을에서 시원한 얼음은 상상할 수도 없겠죠? 대신 이곳에서는 코코넛 열매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답니다.

주스는 마시고, 안쪽의 흰 살은 조리를 하거나 그냥 먹습니다. 반찬은 대부분 짜거나 달게 해서 먹는 데 그 이유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금을 뿌려서 말린 손가락 크기만한 생선 한 마리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울 수 있을 정도랍니다.

뜨거운 커피를 아주 달게 마시는 것도 일상인 것 같습니다.모니터링차 방문한 마을에서 내어 놓은 커피는 뜨겁고 아주 달았습니다. 열이 날 법도 한데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힘이 솟는 느낌이었지요. 정신이 바짝 드는 시큼한 과일(산톨)을 먹는 것도 더위에 지친 몸과 맘을 회복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민다나오에서 5월과 6월에 두차례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봉사단은 민다나오의 찌는 더위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의료서비스를 하였습니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 의료봉사를 오신 강대진 박사님과 의료진들의 더위체험기를 함께 실어보았습니다.

"불가마에서 흐르는 땀보다 더 진한 팥죽 같은 땀이 흘렀고, 머리는 열로 또아리를 튼 모자를 쓴 것 처럼 뜨거웠다. 몇 번이고 쓰러져 지칠

한방의료봉사단 여러분들과 함께

부코주스를 마시고 있는 봉사단원들

때 다른 분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그 걸음도 쉽지는 않다. 발은 푹푹 빠지고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처럼 한 발 나아가면 반 보는 뒤로 밀려나간다.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헉헉헉...다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정말 힘들다. 마침내 간이진료소인 JTS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학교에 도착. 진흙을 잔뜩 발에 묻힌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들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가능한 약을 많이 드릴려고 애썼다. JTS 활동가분들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이원주 회장님과 신철호 회장님께 감사 드린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나눠줄 약품을 실은 말에는 어린 소년이 앉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길을 재촉한다. 의료 봉사를 해주실 한의사 선생님들과 활동가들은 햇빛을 막기 위해 온 몸을 가리고 뙤약볕 아래를 걸어간다.

JTS 소식지와 홍보 영상에서 보던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첫걸음이 가볍다. 그러나 들뜬 마음으로 아름다운 민다나오 산천을 즐기는 여유는 잠시 뿐. 이내 온 몸과 얼굴에서 끊임없이 땀이 흘러내리고 젖은 옷은 내 몸에 착 휘감겨 눈 앞만 겨우 보고 걸어간다.

헉헉 들이쉬고 내쉬는 내 숨소리가 모자를 눌러 쓴 내 귀에 더 크게 들린다. 오르막 길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뛴다. 씩씩하게 걸음을 내딛어 보지만 풀과 밭만 있는 민다나오의 산에서 저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곳은 없다. 열대지방의 습도와 열기. 서울의 더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걷기를 한 시간 반. 드디어 블루안 학교에 도착했다. 내 눈 앞에 펼쳐진 건 사진에서만 보던 아담한 학교 건물, 원두막처럼 생긴

땀을 흘리며 한방치료를 해주시고 계신모습

도서관, 그리고, 와글와글 모여 있는 귀여운 아이들! 올라오느라 수고했다며 학교 선생님이 부코 (코코넛) 한 귀퉁이를 칼로 뚝 잘라 갖다 준다.

옆에 있는 JTS 활동가 말이, 부코주스는 그냥 입 대고 마시는 거란다. 얼굴을 파묻고 쭉 들이켰다. 오, 묘한 맛이다. 시원하지도 특별히 달지도 않지만 뭔가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은 이 맛! 꿀떡꿀떡 끝도 없이 들어간다. 예전에 사먹었던 코코넛 주스는 그저 밋밋한 맛의 매력없는 음료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신비한 주스는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는 이온음료보다도 빨리 내 몸을 채워주고 있는 것만 같다.

전쟁 때 링거가 없으면 대신 이 주스를 꽂았을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이원주 필리핀 JTS 대표님 말씀에 왠지 내 몸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교실에서 약 배분과 침 시술을 도우면서도 계속 땀은 흘러내린다. 한의사 선생님들 진료복도 다 젖었다. 빠굼뽕에서 오후 진료까지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산길은 아침보다 더 길고 덥게 느껴진다.

드디어 도착한 포장도로 변에서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지만 갈증을 달래기엔 뭔가 2% 부족하다. 내 몸은 지금 부코 주스를 원하고 있다. 불루안과빠굼뽕의부코 주스야. 앞으로 무더위속에서 땀 뻘뻘 흘릴 때 네가 많이 생각날 거야. 고마워!"

무더위속에서도 필리핀의 주민들에게 정성껏 한방 의료봉사를 해 주신 봉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위는 물과 함께

타나까, 예알루, 그리고 빛나는 미소로 여름을 견뎌요

미얀마의 여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미얀마의 정장인 반팔셔츠와 론지라는 전통의상인 긴 치마,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노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불에 덴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김성현 | JTS미얀마 활동가

식당의 뜨거운 냄비에 발가락을 데인 줄 알고 놀라서 발을 봤더니 노점 천막 그늘로부터 바깥으로 발끝이 조금 삐져 나가 있었답니다. 닿기만 해도 데인 듯 뜨거운 것이 미얀마의 여름 햇빛이었던 거죠. 하루는 버스 값을 아끼려고 사무실에서 근처 마트까지 왕복 한 시간 반을 걸어갔다 왔는데, 목덜미가 간장 색깔마냥 새까맣게 변했기에 처음에는 미얀마의 오래된 차들의 매연 탓 인줄 알았어요. 샤워를 하면서 비누칠을 하다가 도저히 안 지워지길래 다시 봤더니, 아, 그 사이 햇볕에 목이 타서 그렇게 새카매진 것이었어요.

이처럼 미얀마의 여름도 여느 동남아 국가처럼 뜨겁고 강렬하다 못해 이글거리는데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타나까'를 그토록 애용하나봐요. 타나까는 일종의 미얀마 전통 화장품인데, 성인 남성을 제외한 아이들과 여성들은 얼굴은 물론 손과 발 등 신체가 노출된 부분에 이 타나까를 바릅니다.

타나까는 원래 미얀마에 서식하는 작은 나무의 이름인데, 이 나무껍질을 물과 함께 돌 판에 갈아서 붓으로 얼굴에 바르면 자외선도 막아주고 시원한 느낌도 들며, 덩달아 피부까지 매끄럽게 해 주는 팩 역할도 한다고 해요. 굉장하죠? 그래서인지 미얀마에서는 여름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타나까로 얼굴에 재미있는 모양을 그려 넣은 많은 아이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답니다.

여름을 탈 없이 나기 위해 타나까 못지 않게 미얀마 주민들이 늘 달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녹차잎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새참을 먹을 때, 가볍게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뜨거운 녹차나 녹차잎으로 만든 스낵, 녹차잎으로 만든 요리를 함께 해요.

특히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혼자 라디오를 들을 때도 항상 뜨거운 녹차를 옆에 두고 마시는데, 이는 미얀마사람들이 사람의 몸에는 땅, 불, 바람, 물의 네 가지 요소가 있고, 녹차가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나카를 바른 아이들

오른쪽 두번째가 필자

한 여름에 시원한 녹차가 아닌 뜨거운 녹차를 호호 불어가면서 마신다니, 우리나라의 이열치열과 비슷한 원리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미얀마의 무더위가 그리 괴롭지만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의 남다른 기부문화와 이웃을 위한 배려심이 이 무더위도 날려주는 것 같거든요.

미얀마는 불교문화의 뿌리가 싶어서 주민들이 기부나 자선을 삶의 일상으로 여긴답니다. 이러한 기부 문화에서 비롯된 게 바로 '예알루' 예요. 예알루는 미얀마의 마을 집 앞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종의 물 단지인데, 이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지나가는 이웃이나 타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날 때 언제든지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고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집주인은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단지에 채워놓죠. 원래는 흙으로 빚은 단지에 코코넛 껍질을 깎아 만든 컵을 단지 뚜껑 위에 올려 놓는데, 지금은 코코넛 껍질 대신 플라스틱 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양곤과 같이 점점 발전이 되가는 도시에서는 이런 예알루를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전통은 오래오래 계속되면 좋을텐데 말예요.

이 밖에도, 대나무로 엮어 만든 의자와 모자, 미얀마의 더위를 쫓는 전통 음식 등 많은 것들이 미얀마의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미얀마주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들의 미소인 것 같아요.

미얀마의 미소를 마주하면 해외자원봉사의 어려움도 더위와 함께 씻은 듯이 잊게 되거든요. 아, 오늘도 크고 뜨거운 여름 태양이 높이 솟아 있지만 함께하는 주민분들과 미얀마의 따뜻한 인심을 느끼며 힘차고 활기 차게 하루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한국에 계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계신 모든 JTS 식구분들도 즐겁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미얀마 사업장의 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혹서기가 시작되는 3월에 미얀마로 첫 파견된 촌놈은 생각보다 덥지 않다며 안심했습니다. 수도꼭지 튼 것마냥 등에 땀이 줄줄 흘러도, 이 촌놈은 우리나라 여름보다 미얀마의 여름이 덜 덥다고 마냥 신났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김성현 | JTS미얀마 활동가

식수 사정이 열악한 마을

식수로 사용하는 물

미얀마 여름이 한국 여름보다 덜 더울 리 있나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저 낯선 나라에서의 개척사업이 설레고 신나서 마냥 더위도 잊은 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었던 같고, 마음 한편으로 이왕 고생하면서 봉사하러 온 거, 더위부터 실컷 즐겨보자 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사무실 겸 숙소를 얻고 열정 가득한 현지 자원봉사자도 구한 JTS 미얀마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한다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시작된 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아! 단 하나, 순조롭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건 제 머리 속입니다.

매 답사 때마다 냉철한 눈과 머리로, 어떤 지역이 가장 소외됐고 가장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지역이 가장 JTS의 개발협력 원칙과 이념에 부합하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려 애쓰죠. 하지만, 막상 마을 어귀에서부터 귀한 손님이라며 너무나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 마을 어른들의 배웅, 이 마을이 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가족처럼 생각하고 놀러 오라는 작별인사를 받고 나면 저의 이 어설픈 냉철함은 눈 녹듯 녹아내리고 맙니다.

이곳이 미소의 나라라 불리는 미얀마여서인지, 우리가 답사한 곳이 유독 때 묻지 않은 시골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마을 주민들의 친절이 미얀마의 무더위를 잊게 할 만큼 너무 시원하고 달콤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의 티 없는 웃음, 평화롭기만 한 마을 정경을 눈에 담다 보면, 문득 여기에 구호의 손길이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이들끼리 조용히 오순도순 잘 살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을 이장들이나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시작해 보면 생각은 바뀝니다.

먼저 미얀마는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에 큰 암반이 있어서 기술자나 장비의 도움 없이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만 우물을 파기에는 역부족인 마을도 있고, 겨우 우물을 팠더니 물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거나 염도가 높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양이 많고 깨끗한 물을 파려면 장비를 임대하거나 기술자를 고용해서 우물을 파야 하는데, 시골의 마을에는 그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미얀마의 경제 발전으로 물가가 급속히 오르다 보니 물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 시골 가정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비 임대비가 덩달아 오르는 것도 당연하죠.

교육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얀마의 아이들은 읽고 쓰는 정도의 초등교육은 거의가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얀마는 불교국가여서 정부 인가 학교가 없는 마을은 사원에서 초등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총생산에 비해 문맹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그만큼 교육의 질적 차이도 커지니 부잣집 아이들은 국제학교에서 초, 중 고등교육까지 전부 받는 데 비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중학교가 너무 멀어서, 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겨우 마친 채 어쩔 수 없이 직업 전선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결국 교육의 차이가 아이들 미래의 직업과 소득의 차이를 초래하고, 또다시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고, 이것이 사회의 계층을 형성하는 슬픈 현실이 지금 막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는 지금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막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외부로의 개방을 서두르고 있고,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 주변국 뿐 아니라 서방 세계 국가들까지 미얀마를 주시하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따지자면 미얀마는 걸음마도 안 뗀 아기입니다. 미얀마가 어떤 나라로 클 수 있을지, 지금처럼 미소를 계속 머금은 채 행복하고 튼튼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지금 이 시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파견자라는 부담을 거름 삼아 JTS 역시 미얀마가 지금의 미소를 잃지 않도록 일조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더위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대몬순의 현장, 캄보디아 한가운데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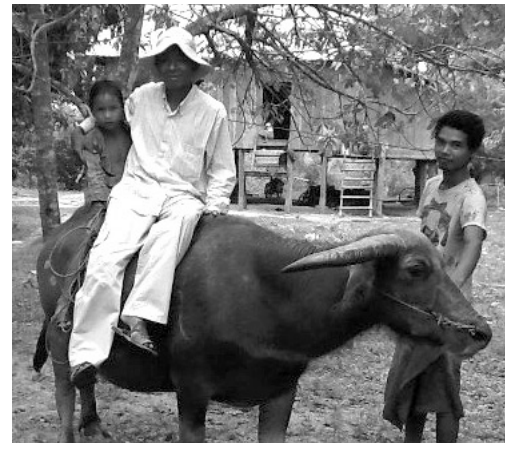
위에서 나타내는 기후를 고르시오.

1) 열대우림기후
2) 사바나기후
3) 열대몬순기후
4) 아열대기후

/함께하고 글쓴이

박병수 | JTS캄보디아 활동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지리 과목 시험이면 항상 나오던 단골문제였지요. '열대우림 아니면 열대몬순인데...' 이름도 비슷하고 알 것같으면서도 항상 찍게 되는 문제. 도대체 이 중에 정답이 있기는 한 건지 '문제'에 '문제'를 제기하던 저였습니다. 학업에 열성적이지 못했던 저에게는 열대 우림과 열대 몬순이 어떤 기후인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살고 있었구요.



캄보디아 농부

그랬던 제가 지금 캄보디아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지리 시간에 그렇게도 저를 고민하게 했던 열대 몬순 기후의 한가운데인 바로 캄보디아에 말입니다. 글로만 배웠던 열대몬순기후를 일상에서 직접 느끼게 될 줄이야!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캄보디아 지도

캄보디아의 기후는 우기(5~10월)와 건기(11~4월)로 나누어집니다. 우기에는 고온 다습하고, 건기인 11~1월은 건조하고 서늘한 날씨가, 2~4월에는 건조한 가운데 한서가 지속되며 기온이 4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살고있는 이 JTS 캄보디아 사무실은 캄보디아 북동부의 라나타끼리(도)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나마 시원한 곳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곳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을 방문할 때면 옷은 샤워라도 한 것처럼 땀에 흠뻑 젖어 있고 사무실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도 땀방울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선풍기마저도 자주 끊어지는 전기 덕분에 멈춰 있기가 일쑤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런 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히려 현지인들에게는 참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더위를 인정하고 더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곳에 살고 있는 평범한 농부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보통 다섯시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농부들에게 해가 뜨기 전인 새벽, 아침 시간은 농사를 짓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 여섯 시면 길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

맨 오른쪽이 필자

인 11시~14시 사이에는 점심 또는 낮잠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고는 오후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덕분에 시골에서는 저녁 일곱 시만 되어도 행인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그렇습니다. 더울 때는 조금 덜 더운 시간에 활동하면 되고, 그래도 더우면 잠깐 쉬면 되고, 그래도 더우면 더위를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지인들은 더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더위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겠지만 이곳은 더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온 지 석 달이 조금 넘은 지금, 이제서야 이곳 환경에 순응하기 시작한 듯 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흐르는 땀방울이 불쾌하지 않고 캄캄한 밤의 고요함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 스럽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캄보디아. 이 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이며 음식, 날씨, 언어 등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이 곳은 때로는 외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크게는 저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시골 지역이라 외국인이 희소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를 환대해 준다

첫 해외봉사활동 소감

한 번 쯤 해보고 싶었던 국제자원봉사. 14기 백일출가를 마치고 혹시 해외자원활동을 해 볼 생각이 없냐는 동기의 권유에 가볍게 '예' 한 것을 계기로 지금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그 섬 서부에 위치한 인구 7만의 루북바송 지역에 오게 되었다.

/인터뷰하고 글쓴이

김선욱 | JTS인도네시아 활동가

2009년 지진복구 때 JTS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었던 화교 친구들

한류는 드라마, 노래 뿐만 아니라 태권도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이곳 시골 마을에서도 한국에 있을 때 말로만 들었던 한류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 드라마가 케이블 TV에서 나오고 간간히 레코드 가게에서는 슈퍼 주니어 노래도 나온다.

우리 JTS 인도네시아 활동가 3명은 이곳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자 유일한 한국인이어서 대부분 주민들의 따듯한 환대와 인사를 받고 있다. 마치 스타 대접이라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들에게 잘 해 주신다.

나는 이곳에서 JTS 인도네시아의 법인 등록과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2010년부터 구호활동으로 시작했던 지진피해 복구 사업도 마무리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도움을 주러 이곳에 왔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리를 다쳤을 때 병원까지 동행해 주고 그 후에 병문안을 와준 동네 주민들.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 의사가 자신의 친구 의사를 소개시켜줘서 좀 더 정확히 진찰을 받을 수 있었던 일. 치료비를 정산하고 약 타는 것을 도와줬던,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날 가게에서 봤다던 모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흔쾌히 도와주는 화교 친구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도 갔던,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 후에 이민국에 같이 가서 여러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던 친구, 튀김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 내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도움을 받게 된 공무원 친구 그리고 요즘 막 친해지기 시작한 농구 친구들 등등.

도움을 주러 왔는데 알고 보니 계속 도움만 받고 있었다. 예전에는 어쩌면 무심히 지나쳐갔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사람과 그 인연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느끼고 있다.

도와준다는 것은 물질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단순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했던 친구.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을 단지 물질 제공자로만 인식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됨을 느꼈다. 활동가로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타문화를 존중하며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나의 활동이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닥고 느끼는 요즘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 그럴 땐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하려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짓곤 했다. 짧은 기간 여기서 생활하면서 그런 나의 어색한 웃음이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미약하지만 마음으로 나와 다른 모습, 행동,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덕분인 것 같다.

동경만 했던 해외자원봉사가 실제로 부딪쳐보니 만만치가 않다.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연습하고 스스로 생활을 충실하게 지낸다면 조금 성숙해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건고 ‘다산의 후예들’과 국제구호의 꿈을 키워요

JTS 편집부

진지한 수업중

한국 JTS는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남양주 소재 진건고등학교 동아리 ‘다산의 후예들’ 친구들과 함께 국제구호활동가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제구호활동가 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계 속에서 나와 우리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한편, 세계 속의 또래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알고 이를 돕는 방법을 직접 연구?실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JTS에서 기획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다산의 후예들’ 친구들은 총 6차시에 걸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시야를 세계로 확장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긴밀히 연관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여러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수업하는 모습

먼저 ‘세계 속의 나’ 시간에는 자신의 꿈을 담은 새로운 이름을 정하고, 주사위를 던져 태어날 나라와 인종, 받을 수 있는 교육 수준과 재산 등을 정하는 인생 게임을 통해 직접 제3세계 청소년의 처지가 되어 보고 느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다산의 후예들’ 친구들은 굶주리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전쟁의 위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속 상호의존성’ 시간에는 무역 게임을 통해 우리가 평소 쉽게 누리던 많은 것들이 세계 속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빈곤·물 부족·아동 인권 및 교육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해 보았습니다.

‘다산의 후예들’ 친구들은 제3세계의 여러 가지 아픈 현실에 대해 마음 깊이 공감하는 한편, 동아리의 특성을 살려 제3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적정 기술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빈곤 문제를 연구했던 시간에는 ‘다산의 후예들’ 친구들 전원이 JTS 돼지저금통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거리 모금을 해왔던 친구들이라 그런 지 이웃을 돕는 마음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릴레이 수료식

아이들이 만들어 준 선물

JTS와 함께 하는 국제구호활동가 교육은 한 학기로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여러 활동을 통하여 '다산의 후예들' 친구들 모두가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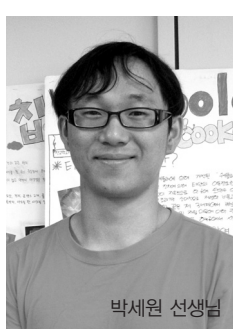
진건고 박세원 선생님 인터뷰

JTS: 반갑습니다. "다산의 후예"라는 동아리 이름이 인상적이에요. 동아리 이름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박: 네, 동아리의 원래 이름은 "착한기술연구회"에요. 열악한 여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보자는 취지의 동아리거든요. "다산의 후예"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올해부터에요.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30개 동아리를 선발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데, 개성 있는 이름이 뭘까 고민이 되더라구요. 올해가 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이고 정약용의 출신지가 남양주라서 "다산의 후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JTS: 몇 학년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나요? 어떤 것을 배우고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요.

박: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1학년 때 기술을 배우는데 2학년 때는 기술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에 흥미 있는 2학년 학생들이 동아리에 와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여학생은 올해 하나도 없고 전부 남학생이네요. (웃음) 지금까지는 태양열만으로 음식을 만드는 태양열 조리기, 식수 사정이 좋지 않은 오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간이 정수기, 자연친화적인 풍력발전기 모형 등을 같이 연구하고 제작해 봤어요.


박세원 선생님

JTS: 국제구호활동가 교육을 진행할 단체로 JTS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박: 작년부터 남양주 JTS 거리모금을 담당해 오고 있었어요. JTS의 취지와 원칙에 깊이 공감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NGO 중에 JTS에 이 수업을 의뢰하게 됐지요. 참, 진건고 학생들도 한 달에 한 번씩 JTS 거리모금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에요. (웃음)

JTS: JTS가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이 있으셨다면요?

박: 첫 시간에 배운 "세계 속의 나"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학생들이 평소에 세계의 빈부 격차나 소외 받는 사람들에 관해 설명을 들어도 스쳐지나가기 마련이었거든요. 그 수업 통해서 제대로, 마음으로 배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착한기술의 쓰임과 개발에 대해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감사했습니다.

JTS: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동아리를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박: 학생들하고 같이 상위 10%가 아닌 나머지 90%의 사람들을 위한 기술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개발해 보고 싶어요. JTS 거리모금을 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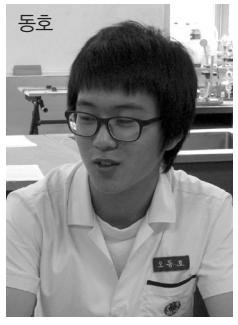
라면 발표하는 학생들

더 교내 모금으로도 확대해서 JTS 해외사업장에 진건고 이름으로 교실 한 칸을 지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웃음)

진건고 학생 인터뷰

JTS: 이번 학기 국제구호활동가 수업을 들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동호: "라이프 스트로우" 수업이 기억에 남아요. 라이프 스트로우는 식수 사정이 나쁜 지역을 위해 개발된 휴대용 간이 정수기예요. 선생님께서 저희도 체험해 보라고 페트병에 못 먹는 물을 준비해 오셔서 그 빨대 정수기(라이프 스트로우)를 꽂아 마셔보게 했는데 먹을 때 정말 꺼림칙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두유랑 커피를 섞은 라떼 같은 음료였어요. '나는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불편했는데 정말 그런 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싶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동호

JTS: 이 수업을 통해 새로 관심을 갖게 된 이슈가 있어요?

경태: 식량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고,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마음 아프더라구요. 물 부족 문제도 처음 관심 갖게 됐어요. 태백 식수난 영상 보면서 한국에도 물 부족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JTS: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승범

승범: 예전에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수해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물 부족이나 재난으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수업 들으면서 그런 재해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 것인지 실감하게 됐어요. 기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관심 갖게 됐구요.

JTS: 앞으로 수업이 계속된다면 어떤 걸 더 해보고 싶어요?

경태

경태: 교실에서 받는 수업은 아무래도 말이랑 글로 배우잖아요. 이번 학기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싶어요. 꼭 해외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더 생생하게 많이 배우게 될 거 같아요.

JTS: 수업을 통해 JTS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들도 있어요?

승범: 예전에는 JTS라는 단체를 아예 몰랐는데 이번에 수업 들으면서 자세히 알게 됐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지민 누나가 JTS 홍보대사인 건 특히 너무 좋아요! (웃음)

JTS: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재호

재호: 생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질병들의 원인을 밝혀내고 싶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동아리에서 JTS 수업 들으면서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학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재능기부로 보람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요!

재능기부 홍보대사 최지정, 오은경 자원활동가 인터뷰

빼어난 디자인 솜씨와 따뜻한 마음으로 JTS의 새 홍보물과 소식지,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신 1대 재능기부 홍보대사 최지정, 오은경 자원활동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사회활동 와중에도 기꺼이 마음을 내 JTS의 온, 오프라인 홍보를 도와주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JTS 후원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재능기부자 최지정, 오은경

재능기부자 최지정

JTS: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최: 안녕하세요, 최지정입니다. 저는 시각영상디자인을 전공하고 1년 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종이 매체가 좋아서 출판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출판은 일단 인쇄가 되고 나면 끝이니까 꼼꼼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면이 제 성격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 2003년부터 웹 운영과 기획 일을 해 왔어요. 미국에서 쇼핑몰 마케팅이랑 사이트 기획을 하기도 했고, 웹 기획 프리랜서로도 일했어요. 지금은 전자회사 어플리케이션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기획과 프로모션 기획을 맡고 있어요.

JTS: 어떤 계기로 JTS에 재능기부를 하게 되셨는지요?

최: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정도 직장을 쉬게 되었어요.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는데 공백기가 있다 보니 쉽지 않더라구요. 한동안 고민하다가, 막연히 서류 준비만 할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싶었어요. 마침 친구가 어린이 미술교육 봉사를 시작해서 재능기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이버 해피빈에서 검색하다 JTS를 알게 됐고, 그 길로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오: tvN 월드스페셜 〈LOVE〉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한지민씨가 JTS 필리핀의 알라원 간 걸 봤어요. 그 영상이 마음에 많이 남아서 한지민씨가 쓴 책 〈우리 벌써 친구가 됐어요〉를 구해 읽었구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가는 거다"라는 글귀가 많이 와닿았어요. 그게 계기가 되서 JTS를 검색했어요. 제가 추진력이 강한 편이라(웃음) 곧장 봉사 신청을 했구요.

JTS: 지금까지 JTS에서 어떤 작업을 해 오셨는지요?

최: 처음에는 연등축제 부스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들을 제작했어요. 첫째, 부스와 잘 조화를 이룰 것. 둘째, 홍보에 기여할 것.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작업했지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 다른 부스에 비해서 화려하게 눈에 잘 띄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JTS 홍보 팜플렛과 후원회원 신청서를 제작했는데, JTS CI와 내용 글 수정만 마치면 곧 인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JTS 소식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책자 작업은 처음이라 공부 해가면서 하다보니 조금 더디긴 한데, 이게 저에게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JTS 홈페이지 리뉴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 단체들 사이트와 JTS 홈페이지 분석을 집중적으로 했고, 어떤 요소들이 JTS 홈페이지에 추가되거나 반영되면 좋을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김혜원 팀장님, 인환씨와 의견을 나누면서 사이트 구성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JTS CI 작업도 진행 중인데 'JTS는 어떤 단체이다', 'JTS는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가 잘 드러나는 결과물이 되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5차 시안이 나왔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 닿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JTS: 작업을 하면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최: 회사에서 청첩장 디자인을 했었는데, 주요 패턴들이 있다 보니 제가 거기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한 JTS라는 단체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그림, 풍성한 일러스트 이미지를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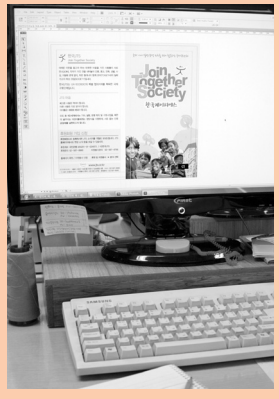
들어 보기도 하고, 기존의 소스를 다양하게 참고해 보기도 하구요.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결과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오: 따뜻함, 웃음, 행복함, 즐거움 등의 느낌을 많이 떠올리면서 작업을 해요. JTS가 활동을 통해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도 이런 것인 만큼, 그 내용이 처음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CI는 특히 고민이 많이 돼요. 홈페이지, 팜플렛, 티셔츠 곳곳에 쓰이게 될 이미지니까 한 번 만들 때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들더라구요. 지금 CI 작업은 제 지인이 함께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둘 다 CI 제작 경험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능기부자 오은경

JTS: 직장생활을 해 오신 와중에 무급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활동하는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최: 갑자기 가장이 되서 첫 사회생활 때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뒤돌아보니 너무 돈에 얽매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그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마감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초조함, 부담감이 컸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바빠도 즐겁게 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웃음)



리플렛 제작

오: 봉사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항상 지쳤어요. 집에 가서 자기 바쁘고, 지쳐있고, 뭔가 재미있는 일도 없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알리는 재미도 있어서 참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좋거든요. (웃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회사에서는 돈을 받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주는 건데,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따라 오거든요. 여기 와서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면서도 그 일이 보람찬 일이니까 뿌듯해요.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요.

JTS: 앞으로 여기에서 추가로 해 보고 싶은 작업은 무엇인지요?

최: 연등행사 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가를 못했어요. 지나고 나니 그게 아쉽더라구요. 내가 한 홍보물을 현장에서 본다는 뿌듯함도 그렇고 우리 단체의 성격이나 현장 활동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현장 행사도 꼭 직접 가서 참여해보고 싶어요. 저 음식 코너 일도 인도 물품 판매도 자신 있거든요. (웃음)

오: 웹쪽으로는 온라인 홍보를 왕성하게 해 보고 싶어요. 제가 온 ·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살리고 캠페인 홍보에 대해서도 지식을 쌓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해외 봉사도 꼭 가보고 싶어요. 좋은 계기, 좋은 시기가 되면 꼭 가보려고 합니다.

JTS: 끝으로, 소식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최: 처음 재능기부 신청할 때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내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게 아닌데 작은 재능도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런데 와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작은 능력들도 다 쓸모가 있는 거구나' 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주저하시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JTS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여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재능기부를 강력 추천합니다! (웃음)

오: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봐요. 낮 내내 일하고 어떻게 밤에 또 JTS 가서 봉사를 하냐구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누구나 동경하잖아요.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 즐거움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다같이 함께 해요!

인도네시아 루북바송에도 JTS의 결실이 활짝 피었습니다

임희성 활동가

JTS인도네시아 임희성 활동가님은 10여 년 동안 건축업계에서 일한 건축 전문가로, 2006년 JTS인도에서 4개월 정도 활동한 후 2010년에 인도네시아 지진피해복구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JTS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국을 방문한 임희성 활동가님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JTS: JTS인도네시아의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임: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약 6000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당시 JTS는 2명의 단원을 파견해 족자카르타 지역1,800가구에 천막 및 담요 등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에도 수마트라 섬에 큰 지진이 나서 박지나 대표님과 최기진 활동가님이 긴급구호활동을 하셨지요.

그 이후로 JTS는 서부수마트라주 아감군 루북바숭면 지역의 지진피해 복구를 약속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JTS: 지금까지 JTS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궁금해요.

임: 네, 2010년에는 루북바숭면에서 지진으로 집을 잃은 가구 중 자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60가구를 조사해 집 신축 지원사업을 했어요. 2011년에는 당시까지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 마을 당 1개씩 총 5개의 유치원을 신축했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루북바숭면 깜뿡땅아리 심빵엄빳 마을에 1km길이의 관개수로 공사도 했구요.

JTS: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치원이 많이 지어졌네요. 상급 학교가 아닌 유치원을 짓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임: 지진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택 복구가 완료되자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JTS에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어린이는 제 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JTS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활동이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 건립이 JTS인도네시아의 2011년 주요 사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상급학교보다 유치원 건립에 집중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JTS: 현지에서 활동하는 타 단체와 차별화되는 JTS만의 일 방식,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임: 타 단체에 비해 저희들이 주민들과 더욱 밀착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단체들은 주로 현지인을 고용해서 그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JTS인도네시아는 사업 선정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주민들과 부대껴가며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일하는 방식도 한쪽이 다른쪽에게 주문하거나 요구한다기 보다, 활동가와 주민들이 친해지면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는 편이에요.

다른 JTS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이 곳 인도네시아에서도 저희가 자재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가 행정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지역주민이 자체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체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학교 "지어주기"식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여기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JTS: 그 원칙에 대해 현지인들이나 현지 타 단체의 반응도 궁금해요.

임: 2011년도엔 현지파트너들이 그 원칙들을 '설마 진짜 이대로 진행할까?' 반신반의하며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기간에 일이 끊기면 주민노동력 동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건비 지원까지 해줬으면 하는 속내를 비추더군요. 웃으면서 거절했죠. (웃음)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나중에는 상대방도 JTS에 그런 기대를 갖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2012년 사업에서는 각 마을들 중 자체 노동력을 제공할 자신이 없는 마을들은 아예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 중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할 여력조차 없는 동네들도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한국에서도 참 실천이 쉽지 않은 원칙이잖아요. 당장 끼니를 채우기도 급한 제3세계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JTS의 다른 해외 사업장, 많은 오지 지역에서도 이 원칙은 존중되며 지켜져왔고 JTS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게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JTS: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언제인가요?

임: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간에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그리고 다 완공되고 나서 주민들과 함께 서로 수고했다고 치하해줄 때, 또, 시간 지난 후에 한 번씩 들렀을 때 유치원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걸 볼 때... (웃음) 네,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뿌듯하고 기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웃음)

JTS: 이야기 전해 듣는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웃음) 혹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도 있으셨는지요.

임: 아무래도 사업이 내 의도대로 진행이 잘 안될 때 가장 어려움을 느껴요. 특히 JTS인도네시아 활동 초반에는 실적도 내고 싶고 능력도 인정받고 싶어서 머릿속으로 모든 구상을 해놓고 한 치 오차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그 구상대로 움직여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화나고 짜증나고 스스로 힘들어 했죠.

예를 들면 시간은 촉박한데 공사가 끊겨 재개되지 않을 때, 사업자들이 약속된 자재배달 날짜를 몇 번씩이나 어길 때, 또는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렇게 여러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가끔씩 화를 내지만 그 때처럼 힘들어하진 않아요. 사안별로 조치를 취하면서 문제상황을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업자와는 일을 지속하지 않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우리 활동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다시 재개될 때 까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JTS: 2012, 2013 인도네시아 사업장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임: 2012년부터는 지진복구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 생업이나 건강, 그리고 교육 분야로 좀 더 다양화된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해요. 구체적으로는 관개수로 1개소, 마을진료소와 유치원 각 2개소 설치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관개수로 및 마을진료소 1개소 유치원 1개소는 이미 공사가 시작 되었어요. 오는 2013년에는 식수문제 개선에 집중해 볼 계획입니다. 30~40m만 기계로 파면 깨끗한 물을 얻을수 있는데도 그 공사비가 없어 오염된 지표수가 흘러들어간 우물물을 그대로 생활용수와 식수로 쓰고 있는 현실이에요.

주민분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갓난아기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인 설립 준비도 하고 있어요. 올 봄에 파견되어 오신 김선욱 활동가님이 이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S: 현지 파견을 준비 중인 새내기 해외활동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임: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충분한 소통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국 전에 현지 언어 공부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언어를 빨리 습득하면 할수록 문화에 대한 이해도 빨라지고 현지 주민과의 의사소통도 매끄러워지거든요. 사업에도 윤기가 돌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챙기느라 분주하겠지만, 꼭 시간을 내어 현지 언어를 미리 공부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꼬또 말린땅마을 보건소 공청회

인도네시아 사업장을 설명하고 계신 임희성님

띨라땅까망 우바마을 관개수로공사

두리언까베한을 유치원 MOU체결식 사진

코오롱패션 산업연구원 학생 일동, 졸업행사로 마련한 기부금 전달

맨 왼쪽 코오롱산업연구원 이규원 원장님

2011년 6월 14일 오후 코오롱패션산업연구원(FIK) 이규한 원장님을 비롯하여 학생회장 이한용님께서 JTS 사무실을 방문해 졸업행사로 마련한 기부금 총 4,166,000원을 전달했습니다.함께 참여한 FIK 학생 나소영씨께서 행사 준비부터 기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글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FIK 학생들의 졸업행사인 Fashion Workshop은 학생들이 주최가 되어 학생들이 직접 장소섭외, 패션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 전부를 기부하는 졸업행사입니다.

홍대 바자회 모습

집접 제작 판매하는 상품

FIK는 패션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곳으로 정규과정은 FD와 MD, VM으로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워크샵은 MD가 상품 기획을 하고 FD에서 디자인을 하며 VM이 매장구성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토탈 프로세스입니다. 기초 자본금은 담당 교수님께 투자를 받아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판매 후 투자금은 회수하고 수익금은 기부를 합니다.기부를 할 단체는 전체 투표를 거쳐 JTS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준비한 이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상품기획, 디자인, 매장구성부터 시작하여 각자 상품들이 서로 컨셉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목걸이, 귀걸이, 팔찌, 선글라스, 다이어리, 손수건, 파우치, 부채, 스카프, 이어폰, 피치백, 유기농비누, 유기농 립밤, 사탕, 비누방울, 헤어밴드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실제 판매를 위한 판매 장소를 직접 발로 뛰며 답사하고, 7개 조끼리 서로 컨셉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고 아이템 또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차이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실제 비용이 다르기도 했고, 상품이 기대와 다르게 못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상품이 잘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제작 시간을 따로 정해서 활동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서 밥을 거르고 밤을 새고 주말을 반납해가며 제작에 매달렸습니다. 눈물 날 만큼 힘들었지만 모든 과정이 경험이 되고 교훈으로 남을 것이고, 무엇보다 결과물이 기부가 되기 때문에 꾹 참고 견뎠습니다.

이 상품들은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에 거쳐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패션 워크숍 축제기간 많은 시민들에게 선

바자회 다양한 물품들

활동 소개 듣는 중

보여졌습니다. 예상보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고, 예상하지 못한 해프닝도 있었지만 3일간의 축제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부금과 함께 찾은 JTS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욱 느낌이 좋은 단체였습니다. 종교색채가 없다는 것과 전 직원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FIK의 기부금은 학생들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웽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축에 쓰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디 그 아이들도 자라서 우리 FIK처럼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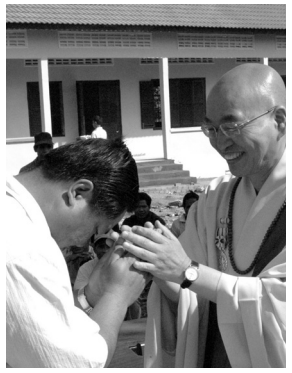
〈JTS, 정토를 일구다〉 1부

나타나끼리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교TV에서는 캄보디아JTS와 필리핀JTS 사업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오늘은 두 편 중 캄보디아JTS에 관한 방영분이었던 1부 "나타나끼리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캄보디아 라타나끼리의 5개 학교 준공식에 참석하러 가신 JTS 이사장님 법륜스님의 일정이 상세히 조명되었어요.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밤길을 8시간 차로 달려 이튿날 열리는 준공식에 참여하셨지요. 현장에서는 박주선 전 캄보디아JTS 활동가가 한국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라타나끼리 지역은 캄보디아에서도 오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이 곳 거주민의 경우 캄보디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크메르족은 3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70%가 고산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전민인 고산족들은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문맹 퇴치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JTS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JTS캄보디아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지역에서 교육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라타나끼리에 5개 학교를 건축했고 2011년에는 라타나끼리 교육청으로부터 50개 학교 설립 제안을 받아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학교를 지어나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대상 지역인 마을을 알려주면 JTS캄보디아에서 사전 답사를 통해 후보지를 차례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JTS한국에 보고하여 검토 후 건축을 최종확정 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날 방송에서는 특히 깔음마을의 깔음초등학교 준공식 현장이 생생히 소개되었는데요, 학교 건축에 참여한 부모님들과 그 덕분으로 학교를 갖게 된 자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느 단체와는 다르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둔 JTS의 사업 방식이 잘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캄보디아JTS가 자재와 기술을 지원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은 학교 부지와 건축을 책임져야 하고, 한 번 지어진 학교는 그 관리도 마을 자치 위원회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교육청은 정규 학교 등록과 교사 파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깔음초등학교의 경우 3, 4월 춘공기를 거치는 동안 일거리가 급한 주민들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 보류와 공사 중단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민의 의지로 그런 고비를 뛰어넘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 마침내 학교를 완성해냈습니다. 어렵사리 지어진 학교인만큼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자녀들의 출석률도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 학교를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JTS 이사장님인 법륜스님의 질문에 학생들 모두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에게 학교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박수 한 번 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륜스님은 부모님들을 향해 "학부형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농사철에 바쁘더라도 아이들 일 시키지 말고 꼭 학교 보내주세요"라고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마을 이장인 마그락씨는 마을 아이들이 학교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학교 덕분에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고 배운 것들을 미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니까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법륜스님은 이 날도 잠시 짬을 내어 부지런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한국어-캄보디아어 통역사 외에 캄보디아어를 부족민 말로 옮겨주는 통역사가 한 명 더 붙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공용어인 표준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을 아이들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캄보디아 공용어를 배우고 앞으로 직업을 갖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교사의 얼굴에 힘이 넘쳤습니다.

"남이 와서 학교를 지어주면 자기 학교가 아니라 남의 학교가 되는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해서 학교를 지으면 자기 학교가 돼요. 주민들이 학교의 주인이 됩니다. 또, 남이 지어준 학교에는 부모들이 열성적으로 자녀를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와서 학교 건축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건축 노동자 동원해서 지으면 3개월에 지을 수 있어요. 마을 사람 협조로 지으면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S가 반드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짓는 건, 자기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이루었다는 경험, 그 과정에서 체득하게 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동정신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도모하는 JTS의 일 방식이 잘 드러난 방송이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JTS의 설립 이념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JTS캄보디아 활동가들과 이사장님 및 대표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JTS가 꿈꾸는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이뤄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더위 속에서 학교 건축에 묵묵히 임하고 있을 현장 활동가들을 떠올리며, 수고하신 많은 분들게 감사의 박수를 전합니다.

인도소식

수자타아카데미가 새겨진 새 가방을 받고 좋아하는 3학년 상기따

1. 4월 24일 신학기 물품(가방, 책, 문구류, 슬리퍼 등) 지급

새 학기를 맞이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물품 지급하는 날입니다. 전교생 학생들에게 가방, 책, 공책, 연필(펜)을 지급하고. 달력이랑 슬리퍼도 지급되었습니다.

2. 5월 6일 부처님오신날 행사

올해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는 중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사문유관"연극을 하였습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한 달간의 연습을 하였답니다. 그밖에도 초등 2학년 남학생들의 "두두(꼬마아이들을 묘사한 귀여운 노래)" 댄스공연과 여학생들의 아름다운 공연도 했습니다. 특히 쁘리야팔스님께서 오셔서 명상에 대한 말씀과 부처님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욕불의식을 하는 진지한 모습의 2학년 데스아자드

3. 5, 6월 교사외부수련(바라나시, 라즈기르) 진행

신입교사그룹과 상급교사그룹을 나누어서 외부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신입교사그룹은 바라나시에서 불교유적지인 사르나트와 힌두유적지인 바라나시에 다녀왔고, 상급교사그룹은 비하르주의 라즈기르를 다녀왔습니다. 불교유적지에서는 함께 명상을 하기도 하고, 힌두 유적지에서는 함께 푸자(제사)도 하고, 산행도 하고, 보트도 타고, 수영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둥게스와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였지요. 무엇보다 학생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후기가 많았답니다.

라즈기르 손 반다르 동굴 앞에서 상급교사들의 모습

4. 6월 14일 지바카병원 백신예방접종 실시

매주 목요일 백신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대상은 태어나서 한 달된 갓난아이부터 4살까지의 어린이들이다. 접종백신으로는 결핵, 비형간염,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등이다. 한 번에 4살까지 어린이에게 총 6회에 걸쳐 접종하며, 접종 시기마다 한국에서 보내 온 어린이 옷, 신발, 모자 등을 선물로 주고 있다. 2012년 6월 14일 백신접종 참가 어린이는 50명입니다.

각 마을리더들이 극빈자들에게 구호품을 나눠 주고 있다

1. 제 23차 극빈자 구호

5월 15일 진행된 이번 23차 극빈자 구호에서는 과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둥게스와리 15개 마을 극빈자 총 45명을 대상으로 쌀 15 Kg, 인도 콩 5 Kg, 겨자 기름 0.5 리터와 함께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다. 한편 이들 중 노인과 병자들은 지바카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그에 따른 의약품을 따로 지원받았다.

나는야 아마르푸르 마을 최고 이쁜이 ~~

2. 부녀자 재봉반 수업 준비

2011년 하반기를 끝으로 중단된 부녀자 재봉반 재개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과정은 예년과 달리 3개월 집중교육과정 동안 출석율을 높이고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제도를 시행한다. 예치금 300루피를 미리 납부하고 출석율 80%이상이며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교육생에게는 전액 환불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수료 후 성실하고 기술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교육 기간 중 사용한 중고 재봉틀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일부는 교사로 선발되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재봉수업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둥게스와리의 어머니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3. 아이씻기기 쉬람단

둥게스와리에서 경제, 보건,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마을 중 하나인 아마르푸르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씻기기 쉬람단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4월 30일을 시작으로 7회째 진행되고 있는 이 쉬람단에는 매주 4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하고 있다.

필리핀/캄보디아소식

필리핀 소식

1. 제 2회 교사 워크샵

5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JTS센터에서 두번째 교사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대상은 다물록 지역의 선생님으로 총1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마을 리더로써 교사가 해야할 역할을 주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인 다학년 학급을 관리하는 방안과 영어교수 학습법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2. KOMSTA(대한 한방 해외 의료 봉사단)의료봉사

5월12일부터 15일까지 다물록 지역의 세지역발루드, 사라와곤, 발라에서 의료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한의사 네 분과 봉사자 두 분이 참가하여 침치료를 하고 한약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다물록시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3일간 500여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의료봉사에 참여해 주신 여섯 분의 KOMSTA 참가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학교 건축 프로젝트·증축 학교 블루안과 키다마에 하드웨어 배달

5월 22일 블루안 학교에, 23일에는 키다마 학교에 교실 증축을 위한 하드웨어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학교는 2009년 학교가 완공된 후 계속 학생들이 늘어서 교실 2칸을 더 짓게 되었습니다.

4.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마카파리 고등학교 &다물록시 보건소 건축 시작

마카파리 고등학교 공사가 6월 5일 시작되어 기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완공되면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야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새 교실에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물록 시 보건소는 6월 13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건물 모두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5. 한방 의료봉사

6월 20,21일 양일간 다물록의블루안, 파굼퐁, 키다마에서 한방 의료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마닐라에서 거주하시는 세분이 참가하셨는데작년 4월에 의료봉사를 했던 경험이 좋아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봉사단은 2일동안 다물록 지역의 400여명에게 의료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풍제약에서 후원하신 회충약, 감기약, 영양제, 비타민제와 한국과 마닐라에서 가져온 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다물록시 보건소에서 어린이들의 키, 몸무게 등을 측정하고 말라리아 검사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JTS는 신풍제약에서 후원받은 회충약을 마을주민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소식

1. 2012년 1차 문구류 / 크마에어책 지원 (2012/06/05~06/11)

그 동안 건축지원했던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문구류를 선물하고 학교 모니터링을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크마에어(캄보디아어)책이 부족한 현지아이들에게 크마에어책도 같이 선물했습니다.

2. 주교육청, 지방정부, 마을주민과의 미팅(20120612)

현재 학교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MOA와 관련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캄보디아JTS에서 활동했던 정훈재 활동가 복귀(20120520)

그 동안 캄보디아JTS에서 활동했던 정훈재 활동가가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인도네시아소식

올해 관개수로 공사를 하게 될 띨라땅까망 지역의 항공사진, 흰색 라인은 수로예정지

1. 2012년 5월 6일 2011년 완공되었던 아감군 띨라땅가망면 우바마을 학교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2. 인도네시아 JTS는 띨라땅가망면 우바마을에 관개수로 MOU를 체결하고 현재 건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3. 인도네시아 JTS는 2012년 7월 1일 두리언까빼마을 유치원MOU를 체결하였습니다.

4. 루북바송면 심팡엄팟 마을에 보건소 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뗑꽁뗑꽁 마을에 유치원 협약식을 진행하고 건설에 착공하였습니다.

어느 기부자의 편지

지난 6월 30일, JTS한국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지갑에 남긴 301,000원을 JTS에 기부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JTS한국에서는 회의를 거쳐, 이 기부금을 굶주림과 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힘든 와중에 큰 결정을 내려주신 故이동규 학생의 어머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JTS 가족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JTS 이사장님인 법륜스님께 편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22일 21살의 너무도 아까운 나이의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여,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버텨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죽기 전까지도 아들은 한 번도 편안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요. 처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5살 때인데, 뇌출혈이었던 아들의 증상을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의 오진은 아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그래도 아들은 병을 이겨내 가며 혼자서 걷고 일반 학교 교육 과정도 마쳐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컴퓨터 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더 바랄 나위가 없는 마음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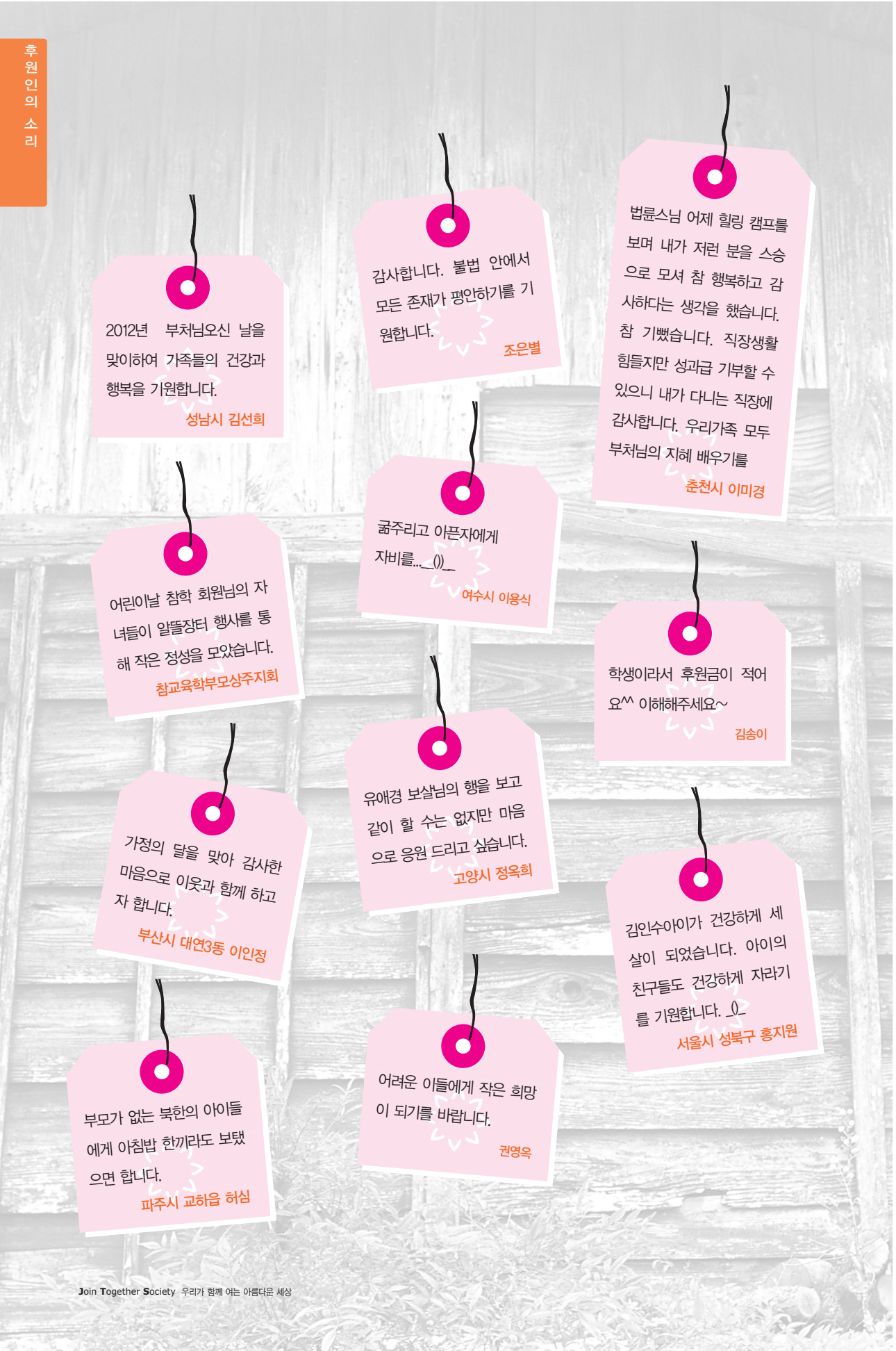
그러나 1년 6개월 전, 아들에게 간질이 찾아왔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아들은 간질이 원인이 되어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녀석의 마지막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 보여서, 저는 아직도 아들이 제 곁에서 자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아들이 세상을 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망자는 잘 보내주어야지 라는 마음에 "잘 가렴, 다음에 또 만나자" 수없이 말 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도 세상을 떠나야지 하는 마음에 베란다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아들에 대한 회한으로 하염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온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지갑에 남기고 간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저 유품으로 아들 방에 두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 돈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귀하게 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륜스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JTS라면 이 돈을 뜻 깊은 곳에 잘 써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몇 자의 편지글과 함께 아들이 남기고 간 돈을 보내드립니다.

법륜스님, 감사합니다. 법륜스님이 책과 영상으로 들려주신 귀한 말씀 덕분에 저도 다시 힘을 내어 이렇게 편지도 쓰고 집 밖 활동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아들도 미소를 짓고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세요.

2012년 6월 30일 이동규 엄마 올림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12년 4월1일–2012년 4월30일

문의전화 02-587-8995

4월 신규회원 북 한 결 연

(주)맥스테크놀러지 2012001948
(주)정림쏠라텍 2012001859
강은주 2012001987
강정미 2012001952
강종숙 2012001939
공도경 2012001931
구지연 2012001993
권기암 2012001929
권종현 2012001985
권현동 2012001857
김경미 2012002023
김경현 2012001890
김다해 2012001792
김미경 2012001888
김미경-1 2012002013
김미정 2012001970
김미진 2012001917
김성아 2012001886
김소연 2012001790
김순희 2012001885
김아름 2012001856
김양지 2012001962
김영애 2012001874
김영옥 2012001842
김윤겸 2012001942
김은옥 2012001757
김은주-1 2012001895
김은주 2012001849
김은진 2012001910
김재성 2012001767
김재원 2012001808
김정선 2012002004
김정원 2012001926
김정훈 2012001753
김지형 2012001858
김철성 2012002029
김해인 2012001855
김화자 2012001819
류정하 2012001901
명양미 2012001850
문정원 2012002021
문춘식 2012001923
문현화 2012001803
박광우 2012001995
박명숙 2012001775
박선영 2012001752
박선희 2012001835
박선희-1 2012001961
박성희 2012001894
박은석 2012001810
박정애 2012001938
박찬주 2012001848
배명선 2012002000
백봉진 2012001788
백영민 2012001960
서숙자 2012001777
소미현 2012001839
손영우 2012001840
손진수 2012001786
송명순 2012001966
송미옥 2012001883
신미혜 2012001968
심재현 2012001844
심지현 2012001893
안정미 2012001991
양귀자 2012001763
여동재 2012001887
염선아 2012001907
염숙희 2012001989
오미영 2012001799
오소영 2012001941
오순택 2012001776
오창진 2012001972
유상경 2012001843
유재인 2012001807
유진이 2012001918
윤경화 2012001816
윤영숙 2012001933
윤혜영 2012001780
윤효승 2012001956
이강수 2012001973
이노미 2012001996
이동규 2012001852
이동민 2012001878
이민우 2012001934
이서환 2012002015
이승미 2012001789
이은순 2012001945
이재훈 2012001976
이정미 2012001998
이정선 2012001903
이지연 2012001797
이철우 2012001936
이향정 2012002014
이희정 2012001787
임동현 2012001922
임종우 2012002010
장미금 2012001756
장미희 2012001999
장영윤 2012002012
장인선 2012001814
장재근 2012001766
정경미 2012001833
정병문 2012001964
정숙영 2012001967
정은숙 2012001811
정은주 2012001841
정은주-1 2012002016
정익상 2012001965
정준혁 2012001783
정현영 2012001963
조성진 2012001877
조혜숙 2012001804
조혜영 2012001902
천석연 2012001765
청연화 2012001911
최돌선 2012001906
최명진 2012002003
최봉석 2012001897
최윤정 2012002017
최은가 2012001764
추송윤 2012001773
추인호 2012001845
큐포스위트 2012001834
한미화 2012001915
함현숙 2012001997
허지 2012001953

인도결핵퇴치

(주)맥스테크놀러지 2012001948
(주)정림쏠라텍 2012001859
강은주 2012001987
강종숙 2012001939
강종숙 2012001939
권기암 2012001929
권종현 2012001985
권종현 2012001985
김금일 2012001879
김길수 2012001805
김미경 2012002013
김미경 2012002013
김선옥 2012002019
김성아 2012001886
김선미 2012001847
김성아 2012001886
김세호 2012001809
김영식 2012001946
김영식 2012001946
김순희 2012001885
김윤겸 2012001942
김윤겸 2012001942
김연례 2012002002
김영식 2012001946
김윤경 2012001921
김은주 2012001895
김은진 2012001910
김윤수 2012001812
김은진 2012001910
김은진 2012001910
김재원 2012001808
김재성 2012001767
김정선 2012002004
김정선 2012002004
김정원 2012001926
김정원 2012001926
김지형 2012001858
김해인 2012001855
김채영 2012002018
김태양 2012001937
김해인 2012001855
김현옥 2012001959
김혜선 2012001791
김호민 2012001806
박선영 2012001892
서동현 2012002027
손진수 2012001786
신미혜 2012001968
심재욱 2012001971
심지현 2012001893
안효진 2012001928
양귀자 2012001763
염선아 2012001907
원명희 2012001958
이강수 2012001973
이노미 2012001996
이민우 2012001934
이서환 2012002015
이재훈 2012001976
이정선 2012001903
이향정 2012002014
이희정 2012001787
장영윤 2012002012
정경미 2012001833
최윤정 2012002017
최은가 2012001764
큐포스위트 2012001834
한건희 2012001940
함현숙 2012001997
강은주 2012001987
강종숙 2012001939
권기암 2012001929
권종현 2012001985
김금일 2012001879
김경미 2012002023
김미경 2012002013
김성아 2012001886
김영식 2012001946
김윤겸 2012001942
김윤경 2012001921
김은주 2012001895
김은진 2012001910
김재성 2012001767
김정선 2012002004
김정원 2012001926
김해인 2012001855
김현옥 2012001959
김혜선 2012001791
김호민 2012001806
박선영 2012001892
서동현 2012002027
손진수 2012001786
신미혜 2012001968
심재욱 2012001971
심지현 2012001893
안효진 2012001928
양귀자 2012001763
염선아 2012001907
원명희 2012001958
이강수 2012001973
이노미 2012001996
이민우 2012001934
이서환 2012002015
이재훈 2012001976
이정선 2012001903
이향정 2012002014
이희정 2012001787
장영윤 2012002012
정경미 2012001833
최윤정 2012002017
최은가 2012001764
큐포스위트 2012001834
한건희 2012001940
함현숙 2012001997
이은순 2012001945
이재훈 2012001976
이정미 2012001998
이정선 2012001903
이지연 2012001797
이철우 2012001936
이향정 2012002014
이희정 2012001787
임동현 2012001922
임종우 2012002010
장미금 2012001756
장미희 2012001999
장영윤 2012002012
장인선 2012001814
장재근 2012001766
정경미 2012001833
정병문 2012001964
정숙영 2012001967
정은숙 2012001811
정은주 2012001841
정은주-1 2012002016
정익상 2012001965
정준혁 2012001783
정현영 2012001963
조성진 2012001877
조혜숙 2012001804
조혜영 2012001902
천석연 2012001765
청연화 2012001911
최돌선 2012001906
최명진 2012002003
최봉석 2012001897
최윤정 2012002017
최은가 2012001764
추송윤 2012001773
추인호 2012001845
큐포스위트 2012001834
한미화 2012001915
함현숙 2012001997
허지 2012001953

인도모자보건

(주)맥스테크놀러지 2012001948
(주)정림쏠라텍 2012001859
강은주 2012001987
강종숙 2012001939
강종숙 2012001939
권기암 2012001929
권종현 2012001985
권종현 2012001985
김금일 2012001879
김경미 2012002023
김미경 2012002013
김성아 2012001886
김선미 2012001847
김성아 2012001886
김세호 2012001809
김영식 2012001946
김영식 2012001946
김순희 2012001885
김윤겸 2012001942
김윤겸 2012001942
김연례 2012002002
김영식 2012001946
김윤경 2012001921
김은주 2012001895
김은진 2012001910
김윤수 2012001812
김은진 2012001910
김은진 2012001910
김재원 2012001808
김재성 2012001767
김정선 2012002004
김정선 2012002004
김정원 2012001926
김정원 2012001926
김지형 2012001858
김해인 2012001855
김채영 2012002018
김태양 2012001937
김해인 2012001855
김현옥 2012001959
김혜선 2012001791
김호민 2012001806
박선영 2012001892
서동현 2012002027
손진수 2012001786
신미혜 2012001968
심재욱 2012001971
심지현 2012001893
안효진 2012001928
양귀자 2012001763
염선아 2012001907
원명희 2012001958
이강수 2012001973
이노미 2012001996
이민우 2012001934
이서환 2012002015
이재훈 2012001976
이정선 2012001903
이향정 2012002014
이희정 2012001787
장영윤 2012002012
정경미 2012001833
최윤정 2012002017
최은가 2012001764
큐포스위트 2012001834
한건희 2012001940
함현숙 2012001997
이은순 2012001945
이재훈 2012001976
이정미 2012001998
이정선 2012001903
이지연 2012001797
이철우 2012001936
이향정 2012002014
이희정 2012001787
임동현 2012001922
임종우 2012002010
장미금 2012001756
장미희 2012001999
장영윤 2012002012
장인선 2012001814
장재근 2012001766
정경미 2012001833
정병문 2012001964
정숙영 2012001967
정은숙 2012001811
정은주 2012001841
정은주-1 2012002016
정익상 2012001965
정준혁 2012001783
정현영 2012001963
조성진 2012001877
조혜숙 2012001804
조혜영 2012001902
천석연 2012001765
청연화 2012001911
최돌선 2012001906
최명진 2012002003
최봉석 2012001897
최윤정 2012002017
최은가 2012001764
추송윤 2012001773
추인호 2012001845
큐포스위트 2012001834
한미화 2012001915
함현숙 2012001997
허지 2012001953

인도및 제3세계

(주)맥스테크놀러지 2012001948
(주)정림쏠라텍 2012001859
강종숙 2012001939
고남숙 2012001837
고아라 2012001875
권기암 2012001929
권종현 2012001985
김금일 2012001879
김길수 2012001805
김선옥 2012002019
김성아 2012001886
김세호 2012001809
김순희 2012001885
김연례 2012002002
김영식 2012001946
김윤경 2012001921
김윤수 2012001812
김은진 2012001910
김재원 2012001808
김정선 2012002004
김정원 2012001926
김지형 2012001858
김채영 2012002018
김태양 2012001937
김해인 2012001855
김현옥 2012001959
김혜선 2012001791
김호민 2012001806
박선영 2012001892
서동현 2012002027
손진수 2012001786
신미혜 2012001968
심재욱 2012001971
심지현 2012001893
안효진 2012001928
양귀자 2012001763
염선아 2012001907
원명희 2012001958
이강수 2012001973
이노미 2012001996
이민우 2012001934
이서환 2012002015
이승미 2012001789
이은순 2012001945
이재훈 2012001976
이향정 2012002014
이효진 2012001754
이희정 2012001787
임동현 2012001922
임은실 2012001798
장명숙 2012001908
장미희 2012001999
장인선 2012001814
정은주 2012002016
정익상 2012001965
정재원 2012001919
조두행 2012002001
조혜숙 2012001804
주철우 2012001862
천석연 2012001765
최돌선 2012001906
최은가 2012001764
큐포스위트 2012001834
한정우 2012001793
함현숙 2012001997
허지 2012001953

김화자	2012001819	큐포스위트		강방윤	2012002106
박명숙	2012001775		2012001834	강성민	2012002150
박병희	2012001949	한건희	2012001940	강정애	2012002109
박선영	2012001752	한금식	2012001896	고은식	2012002322
박성희	2012001894	함현숙	2012001997	공양순	2012002406
박인숙	2012001947	홍종완	2012001778	공은하	2012002192
박정현	2012001779			광은	2012002053
박지원	2012001889	**필 리 핀**		구자성	2012002172
박찬주	2012001848	(주)맥스테크놀러지		구자원	2012002173
백봉진	2012001788		2012001948	권혜경	2012002113
손진수	2012001786	(주)정림쏠라텍		금진자원	2012002131
송명순	2012001966		2012001859	김다영	2012002207
송미옥	2012001883	김길수	2012001805	김동주	2012002130
송승범	2012001774	김미경	2012002013	김미연	2012002159
신미혜	2012001968	김순희	2012001885	김미정	2012002179
심재욱	2012001971	김영식	2012001946	김민정	2012002099
안정미	2012001991	김은옥	2012001757	김범좌	2012002290
여동재	2012001887	김은진	2012001910	김병태	2012002032
염선아	2012001907	김해인	2012001855	김상태	2012002340
오문희	2012001913	문정원	2012002021	김세희	2012002241
오소영	2012001941	박선영	2012001892	김수경	2012002092
오순택	2012001776	배명선	2012002000	김수필	2012002060
우림필마트		손진수	2012001786	김숙영	2012002126
	2012001912	송미옥	2012001883	김순화	2012002327
유재인	2012001807	윤승하	2012001815	김은옥	2012002105
윤영숙	2012001933	이강수	2012001973	김은지	2012002393
이노미	2012001996	이노미	2012001996	김인영	2012002097
이동민	2012001878	이민우	2012001934	김재의	2012002333
이민우	2012001934	이서환	2012002015	김종원	2012002147
이서환	2012002015	이재훈	2012001976	김주희	2012002181
이언주	2012001909	이철우	2012001936	김준범	2012002247
이용원	2012001950	이춘우	2012001904	김지연	2012002347
이재훈	2012001976	이향정	2012002014	김지윤	2012002162
이향정	2012002014	이희정	2012001787	김지혜	2012002298
이혜란	2012001884	장미희	2012001999	김진	2012002248
이희정	2012001787	장인선	2012001814	김현숙	2012002339
임종우	2012002010	전현지	2012001755	김혜정	2012002104
장미희	2012001999	최은가	2012001764	명선형	2012002355
장영윤	2012002012	큐포스위트		문화영	2012002319
정경미	2012001833		2012001834	박규리	2012002093
정은주	2012002016	한건희	2012001940	박나래	2012002219
정준혁	2012001783			박문숙	2012002266
조성진	2012001877	**5월 신규회원**		박미선	2012002398
조영옥	2012001846	**북 한 결 연**		박병윤	2012002277
조혜숙	2012001804	(주)바다	2012002082	박선민	2012002321
최은가	2012001764	강동옥	2012002242	박순이	2012002329

박음옥	2012002269	이자연	2012002155	허만범	2012002101
박일	2012002169	이재범	2012002132	허만헌	2012002079
박정기	2012002138	이정순	2012002320	홍순철	2012002145
박정숙	2012002331	이정아	2012002350	황만복	2012002194
박환희	2012002258	이지민	2012002091	황홍순	2012002394
변규빈	2012002249	이지우	2012002085		
변윤미	2012002330	이찬희	2012002201	**인도결핵퇴치**	
변지민	2012002069	이혜진	2012002134	(주)바다	2012002082
서경옥	2012002166	이화영	2012002182	공양순	2012002406
서애리	2012002264	임영주	2012002233	권혜경	2012002113
소소희	2012002257	임은령	2012002254	김다영	2012002207
손계화	2012002263	임익춘	2012002255	김미정	2012002179
송일선	2012002148	임정숙	2012002187	김병태	2012002032
심현정	2012002146	임춘석	2012002193	김상태	2012002340
안여순	2012002274	임현숙	2012002294	김연희	2012002284
안정미	2012002328	장지예	2012002235	김준범	2012002247
양연주	2012002087	장현실	2012002301	김진	2012002248
양재경	2012002198	장현정	2012002318	김혁동	2012002168
엄재춘	2012002177	장현정	2012002318	김현미	2012002030
오경화	2012002209	전경덕	2012002268	김혜정	2012002104
오미정	2012002332	전병철	2012002303	박규리	2012002093
유승상	2012002125	전영문	2012002151	박나래	2012002219
유정훈	2012002170	정글	2012002315	박병윤	2012002277
윤승희	2012002088	정서연	2012002316	박선민	2012002321
윤혜진	2012002375	정서진	2012002311	박일	2012002169
이경신	2012002407	정영아	2012002287	박주희	2012002081
이경자	2012002197	정유진	2012002121	박지영	2012002089
이계숙	2012002112	정은주	2012002224	변규빈	2012002249
이관형	2012002124	정재학	2012002293	변윤미	2012002330
이관형	2012002124	정지원	2012002309	안정미	2012002328
이동현	2012002152	정창현	2012002265	양나래	2012002128
이명운	2012002206	정후진	2012002153	양재경	2012002198
이미정	2012002323	조경아	2012002337	오경화	2012002209
이상선	2012002256	조수현	2012002218	유승상	2012002125
이석환	2012002133	조현주	2012002077	윤혜진	2012002375
이선정	2012002054	주봉철	2012002163	이계숙	2012002112
이성민	2012002349	최경아	2012002114	이관형	2012002124
이송우	2012002334	최상심	2012002289	이명운	2012002206
이수경	2012002090	최상현	2012002204	이상선	2012002256
이수희	2012002260	최수연	2012002221	이석환	2012002133
이승열	2012002259	최수영	2012002183	이선정	2012002054
이연정	2012002174	최용호	2012002140	이성민	2012002349
이영미	2012002325	최인구	2012002095	이수경	2012002090
이유진	2012002215	최정윤	2012002186	이승열	2012002259
이윤정	2012002401	한광연	2012002244	이유진	2012002215
이은화	2012002346	한덕석	2012002202	이자연	2012002155

이제민	2012002103	양연주	2012002087	홍상희	2012002120
이지우	2012002085	양재경	2012002198	홍순철	2012002145
이찬희	2012002201	유정훈	2012002170		
임익춘	2012002255	윤혜진	2012002375	**인도및 제3세계**	
임정은	2012002165	이계숙	2012002112	(주)바다	2012002082
임행득	2012002164	이관형	2012002124	강민정	2012002157
장지예	2012002235	이미정	2012002323	강방윤	2012002106
정글	2012002315	이민희	2012002343	강영웅	2012002072
정세형	2012002084	이상선	2012002256	강우영	2012002386
조경아	2012002337	이석환	2012002133	강은주	2012002100
최상현	2012002204	이성민	2012002349	강정애	2012002109
최용호	2012002140	이송우	2012002334	공은하	2012002192
한광연	2012002244	이수경	2012002090	공정희	2012002199
		이수희	2012002260	권애경	2012002359
인도모자보건		이승열	2012002259	권혜경	2012002113
(주)바다	2012002082	이연정	2012002174	김경선	2012002253
강동옥	2012002242	이영미	2012002325	김기동	2012002116
강은주	2012002100	이유진	2012002215	김미연	2012002159
권혜경	2012002113	이윤정	2012002401	김병국	2012002167
김다영	2012002207	이자연	2012002155	김병태	2012002032
김동주	2012002130	이제민	2012002103	김봉환	2012002384
김미림	2012002108	이찬희	2012002201	김삼석	2012002251
김미수	2012002217	이혜진	2012002102	김상태	2012002340
김병태	2012002032	이화영	2012002182	김세희	2012002241
김상태	2012002340	임선남	2012002345	김송하	2012002117
김성배	2012002225	임영주	2012002233	김수경	2012002092
김세희	2012002241	임익춘	2012002255	김수필	2012002060
김연희	2012002284	임정은	2012002165	김숙영	2012002126
김준범	2012002247	임지연	2012002156	김연희	2012002284
김하나	2012002286	임춘석	2012002193	김영식	2012002312
김혁동	2012002168	임행득	2012002164	김용임	2012002055
김현미	2012002030	장지은	2012002184	김유연	2012002392
김혜정	2012002104	장현정	2012002318	김은경	2012002262
노혜원	2012002161	정글	2012002315	김종희	2012002399
미몽	2012002348	정선하	2012002110	김준범	2012002247
박규리	2012002093	정세형	2012002084	김지영	2012002171
박나래	2012002219	정유진	2012002317	김지윤	2012002162
박병윤	2012002277	조수현	2012002218	김지현	2012002119
박순이	2012002329	주봉철	2012002163	김학주	2012002239
박일	2012002169	진현미	2012002175	김혁동	2012002168
박주희	2012002081	최다연	2012002395	김현숙	2012002339
박채원	2012002344	최상현	2012002204	김혜경	2012002139
박환희	2012002258	최수영	2012002183	김혜영	2012002051
변규빈	2012002249	최용호	2012002140	김혜정	2012002104
심인보	2012002300	최혜민	2012002361	남현주	2012002403
안정미	2012002328	한광연	2012002244	민솔	2012002353

민지선	2012002057	이제민	2012002103	김상태	2012002340
박규리	2012002093	이지우	2012002085	김연희	2012002284
박나래	2012002219	이찬희	2012002201	김준범	2012002247
박문숙	2012002266	이춘호	2012002115	김지연	2012002347
박미영	2012002064	이형석	2012002227	김혁동	2012002168
박미정	2012002180	이혜진	2012002102	박규리	2012002093
박병윤	2012002277	이효정	2012002203	박나래	2012002219
박은주	2012002226	임영주	2012002233	박병윤	2012002277
박일	2012002169	임은비	2012002326	박순이	2012002329
박주희	2012002081	임익춘	2012002255	박일	2012002169
박준영	2012002252	임지연	2012002156	변규빈	2012002249
박지선	2012002324	임춘석	2012002193	손병욱	2012002178
배윤영	2012002381	임현숙	2012002294	송말순	2012002358
변규빈	2012002249	장지예	2012002235	이계숙	2012002112
변윤미	2012002330	장지은	2012002184	이관형	2012002124
서애리	2012002264	장현실	2012002301	이상선	2012002256
손희림	2012002052	전경덕	2012002268	이석환	2012002133
송말순	2012002358	전기영	2012002304	이성민	2012002349
송일선	2012002148	전영문	2012002151	이수경	2012002090
송정수	2012002285	정글	2012002315	이승열	2012002259
신용우	2012002195	정세형	2012002084	이연정	2012002174
신지애	2012002196	정유진	2012002121	이유진	2012002215
신평안	2012002250	정현규	2012002270	이제민	2012002103
심승보	2012002299	정후진	2012002153	이지형	2012002096
오미정	2012002332	주봉철	2012002163	이찬희	2012002201
옥민근	2012002261	지선희	2012002074	장지예	2012002235
우현숙	2012002354	진현미	2012002175	정글	2012002315
유승상	2012002125	최경아	2012002114	정세형	2012002084
유정수	2012002118	최광희	2012002098	정유진	2012002121
유지영	2012002305	최상심	2012002289	주봉철	2012002163
윤경자	2012002083	최상현	2012002204	최상현	2012002204
이계숙	2012002112	최수연	2012002221	최용호	2012002140
이관형	2012002124	최수영	2012002183		
이교희	2012002341	최용호	2012002140		
이명운	2012002206	최혜민	2012002361		
이석환	2012002133	하태신	2012002291		
이성민	2012002349	한광연	2012002244		
이송우	2012002334	한규현	2012002236		
이수경	2012002090	홍순철	2012002145		
이수희	2012002260	황광연	2012002313		
이승열	2012002259	황유지	2012002094		
이유나	2012002107				
이유진	2012002215	**필 리 핀**			
이은화	2012002346	권혜경	2012002113		
이인숙	2012002137	김민욱	2012002338		
이재범	2012002132	김병태	2012002032		

특별후원금

2012년 4월1일-2012년 5월31일

문의전화 02-587-8995

4월 특별후원금

북 한 결 연

(주)정림쏠라텍 300,000
209-박대훈 5,000
강미경 10,000
고광희 30,000
고은별 10,000
문용섭 박을선영가 극락왕생 50,000
공유경 36,960
구명희 10,000
구순남 200,000
구영희 60,000
권순련 10,000
권신옥 10,000
권영민 100,000
권영옥 200,000
권혁대 4,000
권현숙 100,000
김감래 88,000
김강숙 120,000
김경숙-1 100,000
김경숙 500,000
김경옥 10,000
김경자 30,000
김경화 100,000
김귀동 500,000
김덕수 100,000
김명종 100,000
김미숙 100,000
김보영 50,000
김선주 5,000
김선호 120,000
김성규 100,000
김성남 180,000
김성환 300,000
김애숙 100,000
김연금 100,000
김연희 10,000
김연희-1 10,000
김영림 30,000
김영섭 30,000
김영식 20,000
김영안 20,000
김영조 100,000
김영호 30,000
김유민 10,000
김유진 30,000
김은주 100,000
김인영 20,000
김자영 10,000
김정미 300,000
김정윤 500,000
김주용 100,000
김지영 10,000
김춘희 100,000
김태호 150,000
김행란 56,000
김향임 10,000
김현숙 20,000
김현정 100,000
김형옥 500,000
김호상 130,000
김홍임 100,000
김희경 20,000
남금채 20,000
남정화 30,000
노광철 70,000
류현지 50,000
마혜옥 121,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무명 30,000
문일곤 300,000
문철호 100,000
문현숙 10,000
문희경 50,000
민홍금 13,000
박갑식 30,000
박경수 100,000
박동진 100,000
박미영 100,000
박민규 50,000
박별님 30,000
박병원 10,000
박수영 100,000
오희숙 영가 극락왕생 50,000
기원발원 500,000
박승자 100,000
박신우 50,000
박영옥 20,000
박영주 40,000
박유선 30,000
박은숙 20,000
박종은 12,000
박종후 100,000
박준자 100,000
배선화 100,000
서석곤 300,000
서양숙 100,000
서예원 20,000
서인우 10,000
서춘희 20,000
성동제 200,000
손세미 124,000
손은영 10,000
손은주 30,000
손희림 10,000
송은지 10,000
신선영 28,000
신순숙 100,000
신혜경 60,000
심을택 100,000
심정순어머님 장춘자영가 극락왕생발원 5,000,000
심학순 20,000
안병주 100,000
안봉진 100,000
안선영 103,000
안혜원 20,000
안효호 90,000
양태희 100,000
우근희 20,000
유미향 20,000
유인경 50,000
유정자 110,000
윤영미 277,000
윤정상 10,000
이경희 100,000
이만영 100,000
이명숙 100,000
이명순 70,000
이명자 10,000
이명희 30,000
이무열 10,000
이미희 50,000
이병호 100,000
이상옥 50,000
이상헌 5,000,000
이성균 74,420
이성희 100,000
이순희 20,000
이승화 20,000
이양옥 30,000
이언화 10,000
이연옥-1 51,000
이연옥 100,000
이옥현 100,000
이원형 20,000
이위선 300,000
이유진 10,000
이윤희 10,000
이은희 50,000
이점숙 50,000
이정희 30,000
이중인 100,000
이진학 50,000
이춘곤 40,000
이해숙 300,000
이향숙 11,500
이혜숙 100,000
임현정 10,000
장일안 30,000
장태식 47,000
정교필 50,000
정귀조 100,000
정길수,이만희 1,000,000
정래원,한제인 500,000
정수진 50,000
정순둘 100,000
정순이 100,000
정스런 10,000
정원자 50,000
정유선 20,000
정윤점 30,000
정인숙 90,000
정재남 50,000
정태윤,박소영 500,000
정필연 100,000
정혜금 60,000
정훈석 30,000
정희교 100,000
조선옥 200,000
조은서 10,000
조정출 50,000
조지영 60,000
주미경 1,000
주선자 30,000
진은실 10,000
차상훈 500,000
최경련 100,000
최말숙 50,000
최문숙 100,000
최미영 50,000
최숙자 40,000
최순희 100,000
최양자 10,000
최연희 100,000
최영순 20,000
하경선 50,000
한명수 30,000
허경미 20,000
허대영 10,000
허심 500,000
배영수영가극락왕생기원 1,000,000
홍순남 60,000
홍희경 10,000
황기태 30,000
황지선 50,000
황지회 100,000

인 도 결 핵 퇴 치

권영옥 200,000
김경화 100,000
김보영 10,000
김인숙 50,000
박별님 30,000
서예원 20,000
송승범 5,000
신용철 100,000
이나금 150,000
이명희 30,000
이영주 10,000
이호성 250,000
최찬일 500,000

인도 및 제3세계

TS 20,000
강규홍 50,000
강완자 5,000
강혜원 100,000
고이금 50,000
고혜원 50,000
곽유경 20,000
곽인숙 300,000
권영옥 200,000
김경란 60,000
김경숙 100,000
김경화 100,000
김광원 1,580,000
김명애-015 20,000
김미선 18,000
김미정 50,000
김미환 100,000
김선호 30,000
김연지 100,000
김영옥 500,000
김윤희 200,000
김인숙 50,000
김정호 200,000
김형기 10,000
김홍철 30,000
꽃피는학교(제천) 13,775
나용학 5,000
남차생 100,000
노윤성 2,000
권한수어머님 이춘락영가 님 극락왕생 3,000,000
류홍기 50,000
맹희섭 700,000
무명 100,000
문성원 100,000
박대훈 5,000
박선미 102,250
박승규 10,000
박영옥-1 30,000
박영옥 263,220
박은화 60,000
박혜숙 100,000
부산원오사 200,000
북한어린이돕기 200,000
쁘리앙카장학금 4,000,000
서예원 20,000
송명숙 100,000
신숙희 100,000
신한카드 30,000
안성삼 100,000
안지훈 30,00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5,500
여정화 500,000
유선애 100,000
유송우 50,000
유인경 50,000
유재연 110,000
윤진아 30,000
이경숙 20,000
이명순 100,000
이명희 30,000
이문호 20,000
이봉식 100,000
이앵순 30,000
이윤희 300,000
이현숙 1,000,000
임익수 500,000
장명희 30,000
장영민 1,000,000
장이순 50,000
장일안 10,000
전남복 130,000
전문표 200,000
정각 50,000
정교필 50,000
정백기 1,000,000
정석재 30,000
정스런 10,000
정재욱 2,000,000
차봉준 400,000
창원정토회 145,000
최양자 10,000
최예린 100,000
최운규 150,000
최정일 107,000
최현정 50,000
하몽푸드 직원일동 213,840
하재남 200,000
한옥희 25,000
해피빈 157,800
허심 100,000
허태경 500,000
홍경주 1,000,000
후원합니다 400,000

필 리 핀

(주)정림쏠라텍 100,000
권영옥 200,000
김경화 100,000
김보영 10,000
김선호 30,000
서예원 20,000
이명희 20,000
장일안 10,000
정스런 10,000
최양자 10,000

긴 급 구 호

황성민 5,000

5월 특별후원금

북 한 결 연

강재연 61,200
강천근 100,000
고혜원 100,000
공유경 341,000
공윤경 30,000
곽광섭 50,000
구상은 150,000
권순령 20,000
권혁대 3,000
권현숙 20,000
김경미 10,000
김경화 100,000
김미정 50,000
김병집 5,000
김보영 15,000
김선희 50,000
김성남 180,000
김소영 60,000
김송이 20,000
김순화 50,000
김아사 50,000
마산김애자 100,000
김영범 56,000
김용동 250,000
김은숙 100,000
김은진 15,850
김익현 100,000
김인수 1,000,000
김충웅 100,000
나희원 100,000
노신섭 100,000
도재언 150,000
류송우 50,000
목인방(김홍임) 100,000
박선희 50,000
박인정 100,000
박수영-1 200,000
박수영 150,000
박순임 10,000
박은준 100,000
배웅규 50,000
서예원 10,000
성정옥 100,000
손윤희 100,000
손지훈 10,000
신성숙 200,000
신용섭 10,000
신정덕 400,000
안복순 10,000
엄재춘 10,000
엘렉스케일라 200,000
여승은 73,170
여인욱 66,270
오윤숙 100,000
오의숙 50,000
오제량 100,000
우순점 200,000
우현준 우서현 150,000
유병일 105,200
유순임 20,000
윤지수 76,000
이명자 500,000
이미경 650,000
이상옥 50,000
이숙지 50,000
이순이 1,000,000
이승화 50,000
이영재 5,000,000
이용식 100,000
이원형 18,000
이위선 220,000
이인정 200,000
이정희 1,000,000
이주형 5,000
이지원 100,000
이창수 500,000
이향숙 32,540
조재춘김창용염정희백명숙 78,700
임송식 100,000
임양호 2,000,000
장귀예 50,000
장명희 10,000
장문창 10,000
장수연 50,000
장진영 50,000
정상숙 32,400
정서윤 5,000
정옥화 150,000
정재남 47,000
정진구 160,000
정진희 100,000
정혜정 50,000
조미현 50,000
조은별 50,000
조지영 1,000,000
주순옥 63,560
지현영 5,000
진영미 100,000
참교육학부모상주지회 10,000
초록빛바다어린이집어머니회 400,000
최미영 50,000
최윤경 30,000
최정자 100,000
최정희 200,000
최홍선 10,000
한보석 50,000
한선화 50,000
허인영 400,000
허향미 1,000,000
홍다빈사람들 88,000
홍성관 500,000
홍숙이 50,000
홍원보 10,000
황용배 49,020

인 도 결 핵 퇴 치

강은주 100,000
고혜원 50,000
권민수 30,000
김경화 100,000
김보영 5,000
김인숙 100,000
김충웅 50,000
노민호 100,000
노신섭 30,000
박별님 20,000
박은경 100,000
손지훈 10,000
신용섭 10,000
안복순 10,000
이미경 150,000
이용식 50,000
이원형 13,000
이종휘 50,000
이주형 10,000

가네야마상 건강기원 110,000

정서윤 5,000
정원우 100,000
진영은 10,000
허인영 400,000
홍원보 10,000

인 도 모 자 보 건

고혜원 50,000
권예진 30,000
김경화 100,000
김보영 15,000
김영호 30,000
김용동 50,000

김인수아가 건강기원 1,000,000

김인숙 50,000
김지연 200,000
김진석 1,205,800
김충웅 50,000

김혜영막내아들 생일축하 50,000

나경원 100,000
나경주 100,000
나희원 100,000
노혜원 50,000
석성순 300,000
손지훈 10,000
신용섭 10,000
안복순 10,000
이미경 150,000
이원형 13,000

나눔회원 알림판

이종휘	50,000	이버님 남일연영가극락		윤경화윤성원윤진욱	
이주형	10,000	왕생	300,000		18,000
이학순	100,000	류미	448,040	윤관열	30,000
정서윤	5,000	무명	54,000	윤상오	30,000
정원우	100,000	문경원	30,000	윤영민	30,000
진영은	10,000	미겔앙헬	54,000	윤태욱	128,470
콩콩이	30,000	박국희(한샘가경플러스)		윤화자	200,000
허인영	400,000		830,000	이광성	100,000
홍원보	10,000	박병수	448,040	이명자	400,000
		박선미	42,000	이미경	650,000
인도및 제3세계		박영옥	92,000	이순남	12,400
감사합니다	69,000	박영자	30,000	이승미	500,000
강득록	30,000	박은정	113,960	이승재	11,000
강영주	22,220	박종덕	100,000	이용식	50,000
강은주	100,000	박종학	1,000,000	이원형	8,000
강진희	50,000	배명숙	5,480,624	이종휘	38,000
고종옥	10,000	배호식	44,190	이주형	5,000
고혜원	100,000	법륜스님짱	3,000	이진희	110,000
구윤회	150,000	소휴사 법일스님		이태영	11,000
권계정	20,000		100,000,000	이필래	100,000
권서운	100,000	봉금례	300,000	이화자	30,000
권성실	7,000,000	서미덕	100,000	임종우	450,000
권정아	100,000	서양숙	28,000	장귀예	50,000
김경화	100,000	설지선	20,000	장덕순	30,000
김범준	30,000	손지훈	10,000	장명희	20,000
김보경	20,000	손효은	100,000	장성호	100,000
김보영	15,000	송무량심	300,000	전성하	100,000
김상옥	20,000	송치완	100,000	전평환	50,000
김상윤	10,000	신미라	20,000	정만월	30,000
김성현	448,040	신용섭	10,000	정문교	300,000
김수진	50,000	신제영	20,000	정서윤	5,000
김순호	200,000	신한58741562	30,000	정선경	100,000
김승태	1,000,000	심유현	150,000	정성호	558,410
김신규	100,000	안복순	10,000	정옥진–아들결혼축하	
김영길	200,000	안서연	30,000		100,000
김영미	50,000	안창을	10,000	정윤정	20,000
김영웅	100,000	엄애순	95,650	정정숙	10,000
김완희	100,000	오남순	100,000	정진관	100,000
김용동	50,000	오미정	500,000	조미라	100,000
김용훈	119,500	오성근	448,040	조연옥	30,000
김은	30,000	오세철	315,000	조혜정–엄마수술	
김인숙	50,000	원화스님	91,000	완쾌기원	10,000
김정수	300,000	유미정	30,000	지옥스님	350,000
김정숙	2,000,000	유순임	10,000	지향스님	200,000
김종택	30,000	유애경	10,000	진건고송재협	50,000

진영은	10,000	해피빈	139,200	손지훈	10,000
차경순	50,000	허인영	400,000	신용섭	10,000
참교육학부모상주지회		홍원보	10,000	안복순	10,000
	30,000	황말순	10,000	이미경	150,000
최건업	74,370	황순옥	50,000	이원형	8,000
최미영	50,000	흥천사신도회	3,000,000	정원우	100,000
최성희	1,000,000			허인영	400,000
최연주	110,000	**필리핀**		홍원보	10,000
최지형	100,000	김경화	100,000		
최현우	100,000	김보영	10,000		
하은이	40,000	김용동	50,000		
한규현	100,000	서양숙	30,000		

해외 JTS 후원금

미국 JTS		잭슨빌수세미판매	
김선화	$100.00		$750.00
김원태	$30.00	최경숙	$30.50
뉴저지불대생	$100.00	최만성	$20.00
도성희	$1,500.00	최 영 태 & 김 성 순	
마이클 양	$31.00		$200.00
무명	$360.00	한혜진	$100.00
민윤기	$60.00	한혜진	$100.00
불교대학생무주상		Freud Poe Park	
	$81.00		$80.00
배상옥	$30.00	JTS자금통	$416.00
배한택	$100.00		
이귀염	$100.00	**시드니 JTS**	
이동근	$100.00	박은정	$100
이명숙	$300.00	정성호	$490
임선희	$30.00		

해외자원봉사자	
김성현	$300
류비	$300
박병수	$300
배명숙	$5,122
오성근	$300

나눔저금통 현황

2011년 04월 01일 ~ 2012년 05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5

거제 권재영 31,810 김용희 14,310 원마트 14,940 이미자 14,540 최한재,최한슬 53,690

광주 김도영 9,720 무명 193,470 이현형,이서현 19,860 최선희 20,670

구미 김영균,김진우 22,920 김형수 14,130 내미라 19,440

대구

강나영 60,870 강준순,박명희 77,230 고명서 14,620 고명준 18,760 권오채,조재준 44,350 권현주(4) 28,750 김종헌 14,120 남준호 32,510 무명 21,400 무명 25,300 무명 13,120 무명 30,740 무명 9,250 박길태 22,230 박복주 20,090 박재원 20,650 박준영,박민아 30,720 새대한약국 22,510 새대한약국 15,480 신미란 53,560 신연화 50,850 안영숙 17,900 안준옥 17,190 염정희,백명숙 35,900 이마트마일리지 32,660 이송이 20,920 이은기 19,070 이진하 30,390 이춘희 9,560 임금실 50,600 임금실 43,600 장선옥 30,870 정지윤 24,960 조재춘.김창용 42,800 차경순 31,550 칠곡소망어린이집(3) 44,420 홍정옥 38,130

대전

강재연 18,680 강채연 18,430 금송농원 222,960 김기일 41,970 김은주 114,000 김준성 26,050 김채영 55,880 무명 33,080 무명 42,380 무명 21,800 박재민 9,660 박찬영 32,110 박창연 24,010 법당 16,730 변석준 20,240 유인숙 33,250 유호정 35,450 윤영희 17,870 장희문 63,370 전태수 20,680

마산

김수현,김지승,김시영 67,120 김순자 8,280 김정래 17,070 남윤숙 56,630 무명 3,820 무명 42,260 밀양조이잉글리쉬 49,410 서동찬 74,060 서원에버빌502호 82,270 안세정 60,240 이주윤 22,590 조진경 7,300

서울

838차이경나 11,790 강연순 76,550 김민현 17,700 김민후,정성자,허향미 136,220 김준서72,010 김지현 48,310 김향 41,650 김현서 86,160 무명 37,540 무명 20,750 무명 10,000 무명 16,630 무명 13,590 무명 70,700 무명 41,200 무명 20,610 무명 19,470 무명 5,730 무명 30,560 박규리 65,060 박기화 18,920 서병하 35,710 송문재 25,500 신인자 21,000 오수진 12,000 이석형 37,070 정주미 21,430 정후곤 44,230 주정미 25,690 최용원 23,640 최원복 51,270 한지희 39,000

울산

강경아 14,010 김영주 30,400 김일윤 45,080 대방낙지명촌점 23,060 무명 15,700 바이더웨이 6,320 박말숙 14,170 박은선 16,050 법성행 20,160 손승욱 53,700 손옥례 31,000 신현철치과 94,710 양승돈 41,800 울산차량등록소 27,800 임경숙 31,830 장숙희 17,800 장한성 30,210 정소민 25,460 정진현 19,010 조동원 20,900 채종수 17,260 최용춘 33,190 한빛치과 18,980 허남운 36,600 호두스토리(아음) 45,020 호루라기 16,050 화장품프라자 113,720 LIG매직카 29,940

제천

김광호 70,400 김민미 35,340 박금선 66,930 오효정 20,620 이규열 57,980

창원 서운현 22,450 신순이 47,370 신우치유센터 32,670 진혜란 42,750

청주

기홍진 35,190 김민석 40,850 박노옥 22,330 박세준 22,930 박준자 41,080 아하과학교실 36,480 윤정희 35,230 이수민 15,090 지명구 61,020 최용석 33,700 한동섭 40,290

포항 김동균 28,490 최춘해 27,050

해운대

김복순 23,390 무명 21,720 무명 18,850 문원보 106,880 신은영 27,310 정의헌 11,620 조윤진 29,520 파리바게트좌동점 34,230

기타

4/22입재식시JTS부스에맡긴저금통2개 114,880 고순현 34,120 국민은행강남대로 87,000 권오훈 18,520 김연철 57,640 김영숙 25,350 김은숙 69,850 김정아 77,310 김형준 26,150 박수빈 36,070 서초1동우체국 38,540 서초1동우체국장 19,670 운암고3-1 40,630 이마트단체지원 1,725 이미애 45,200 이승덕 20,330 일깨저금통 291,000 전병찬 63,360 정태호 53,400 조은정 40,540 학생 6,160

| 거리 모금 현황 |

2012년 04월 01일부터 2012년 05월 31일까지

강서(이원진) 132,200 강화 287,430 거제사우나 239,260 경주 1,181,420 광주 1,019,670 구미 1,128,750 기장 162,100 길벗 5,723,260 김해 315,790 나눔축제시모금 254,390 남양주 140,180 노원 562,260 대구 6,283,540 대전 1,525,690 동래 2,763,270 마산 4,105,560 목포 190,680 문경 305,900 방이 186,930 부사 210,000 부천 232,450 분당 408,070 사하 157,600 상주 251,100 서울 1,906,580 수원 648,080 순천 230,230 아산 195,350 안동 260,000 안산 98,300 안양 212,850 연등축제시물품판매금 5,148,000 용인 504,940 운암고3학년 141,820 울산 1,690,570 원주 258,200 은평 607,390 이현구 214,528 인천 294,270 일산 1,024,490 입재식시모금 153,600 전주 100,000 정관 190,850 정읍 418,960 제주 549,440 창원 1,928,310 청주 1,376,570 초파일행사시모금 111,220 춘천 238,440 평택 271,320 포항 929,790 해운대 1,710,480 행자원불대생 306,340 홍성 169,85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을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 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가장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